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위안부, 국가간 합의만으로 결코 문답을 수 없는 문제"

국가간 합의는 국제법상 효력, 재협상은 신뢰에 흠집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발언, 정부기금 출연은 성과  
사죄표현 아닌 국가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인정 필요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관련  
이성윤교수 지상 인터뷰 <관련기사 30면>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장명술 기자  
= 상치난 부위에 약  
을 뿌리고 붕대를 감  
는다. 상처의 기억은  
그럼에도 시간이 갈  
수록 아프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서둘러 위안부 협상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치료되지 않은 상처  
에 다시 약을 뿌리고 붕대를 감은 것이다. 두  
정부는 공히 '끝났다' 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담화에서 "현재로서는 최상  
의 협상결과" 라고 밝혔다.

환자는 아픈데 치료사는 퇴원을 요구한다.  
이 협상의 뒷마무리는 이처럼 개운치 않다.  
위안부 당사자들은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이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 김은성씨는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녀 옆에 앉아서 소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바란다" 고 했다

길 거부했다. 한국인 다수(55%)는 협상에 반  
대한다. 찬성은 28%다. 그럼에도 협상의 결  
과를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이 다르고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야당인 더민주당은 재  
협상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철 때일수  
록 차분하게 시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지난 11일 워싱턴 윌슨센터에서는 일본 위  
안부 세미나가 열렸다. (제국의 위안부)의 저  
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참가했다. 메드포드  
소재 텡스대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도 토

론자로 참가했다. 위안부 협상 후의 문제를  
토론기로 한 이 토론의 장은 위안부의 정통성  
을 재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일본이  
경비를 전액 지원해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의도가 의아스러웠다. 또한 이성윤 교수가 이  
날 주제에 관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했다

이성윤 교수에게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  
일 양국의 위안부 협의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를 물었다. 한일위안부 협상에 어떤 문제가  
▶▶4면으로 계속



## 2015년 뉴스타 부동산 매출 1위 애나정 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  
스타 보스톤지사의 에이전트 애나 정씨가 2012  
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주 전체 뉴스타 프렌차  
이즈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뉴스타는 매년 LA  
를 제외한 미 전역 매출 1위를 선정, 시상한다.

뉴스타 보스톤 지사는 지난 12월 29일 벌링톤  
소재 레드스톤 레스토랑에서 2015년을 마감하  
는 연말파티를 개최해 자사 소속 에이전트 애나  
정씨에게 본사의 표창장을 전했다. 애나 정씨  
는 2013, 2014년 2년 연속 전국 매출 2위를 차지  
했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매출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공인 중개사로 12년간 경  
력을 가졌던 애나 정씨는 보스톤에서 부동산에  
이전으로 일한 지 4년 만에 미주 전체 1위를 차  
지한 이후 꾸준히 1,2위를 지켜온 것이다.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2016년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890**  
ONLY 1 STOP  
(샌프란시스코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890는 유나이티드 항공 요금입니다.  
출발일자는 2016년 5월 10일 (화)까지로 제한되며,  
발권기한은 1월 26일 (화)까지입니다.  
여행일정, 실시간 예약상황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받을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ame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87  
juno@selamifirm.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 시민협회 정치인턴 장학생 모집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2월 10일 모집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2016년 정치인턴십 장학생 모집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 10일 마감한다.

차세대 정치인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치인턴 장학생 모집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학생은 대학생 \$2000, 고등학생 \$500의 장학금을 각각 수여받고 여름 동안 정치인 사무실 혹은 정부기관에서 6주에서 8주 가량 인턴십을 하게 된다.

올해 대학생 인턴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 또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고등학생 인턴은 테키 첸 하원의원 사무실,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 사무실, 대니얼 고 보스톤 시장 수석보좌관 사무실 및 르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관심 있는 학생은 2월 10일까지 시민협회 인턴십 담당자(임균택 사무차장, kyuntaek001@gmail.com)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에는 개별적으로 선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청서는 시민협회 웹사이트(www.kacl-ne.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작년에도 대학생 인턴 및 고등학생 인턴 총 6명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찰리 베이커 사무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사무실, 테키 첸 하원의원 사무실, 미셸 우 보스톤 광역시의원 사무실 그리고 르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인턴을 마쳤다.

한편, 인턴십 홍보 및 후원을 위한 모금 만찬이 4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 렉싱턴 소재 렉싱턴 엘크스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이경혜 회장(508-962-2989)이나 김성균 이사장(617-799-7033), 임균택 사무차장(857-207-7711)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미 1등 에이전트가 된 애나정 씨(오른쪽)와 보스톤 지사 백영주 대표(왼쪽)

## 보스톤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한 지 4년 만에 미주 전체 1위

▶▶1면에 이어서

애나 정씨는 1등의 비결에 대해 “오늘도 손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기브애타이크(Give and take)를 꼭 지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에 항상 손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베풀 수가 있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애나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한인회보에 <내집 마련 가이드> 부동산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다. 정 씨

는 매주 칼럼을 게재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언제나 자신이 아닌 손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인다” 는 정 씨는 손님이 원하는 시간이 바로 자신의 업무시간이라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백영주 뉴스타 보스톤 지사 대표는 비교적 한인들이 많은 LA, 뉴욕, 시카고 등도 아닌 보스톤에서 1등 에이전트가 탄생한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노고

를 칭찬했다.

정씨는 “올해 부동산은 금리 인상보다는 주택 매물 재고 부족이 더 중요한 문제” 라고 지적하고 “30대 중반에서 50대 까지의 X세대의 첫 주택 장만, 30대 초반 이하의 밀레니얼 세대의 좋은 집으로 이사, 그리고 노년층의 다운사이드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일 것” 이라고 전망했다.

editor@bostonkorea.com

시즌 최대의 세일  
당신이 사랑하는 디자이너의 작품

# LAST CALL SALE

SAVE UP TO

# 70% OFF

IN STORES & ONLINE  
GOING ON NOW

Neiman Marcus

본 광고는 2016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유효하며, 일부 품목 제외는 오직 온라인에서  
시운전 기간, 인센티브 특별 행사일 제외, 품목 및 수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부 품목은 온라인에서만  
종료 시 40%까지 70%까지 할인해, 상세한 조건과 주의사항은 본 광고를 보거나 가까운 코네티컷 매장은  
매일 방문하여 내내시는 보충하거나 NeimanMarcus.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코네티컷 매장은 일부 품목이 제외될 수 있음.

COPLEY PLACE 617.536.3660 NATICK MALL 508.620.5700 NEMANMARCUS.COM

# 보스톤 한인성당 출신 배웅진 부제 서품받아

MIT 졸업후 직장 생활  
선교지에서 도움의 삶,  
사제 결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 보스톤 한인성당 청년부 출신으로 신학교에 진학한 배웅진 신학생이 지난 1월 9일 보스톤 대교구 소속 신학생 6명과 함께 부제 서품을 받았다.

성 십자가 주교좌 성당 (CATHEDRAL OF THE HOLY CROSS)에서 보스톤 대교구 선 오말리 추기경 주례로 열린 서품식에서 배웅진 크리스토퍼 신학생은 순명, 정결, 독신을 서약하고 '하느님의 종'으로 살 것을 다짐했다.

오말리 추기경은 강론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힘의 근원이 되어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전도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웅진 부제는 1월 10일 성양루안 더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에서 정광호 도미니코 주임 신부와 함께 부제서품 이후 첫

미사를 가졌다. 배웅진 부제는 첫 강론에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느님의 섬세한 계획과 사랑의 베풀어 준 감격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배웅진 크리스토퍼 부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UCLA를 졸업하고 MIT 기계공학과 석사 재학 시절 보스톤 한인 성당 청년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졸업 후 배 부제는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하이티에서 10일간의 BMI 선교활동을 하면서 하이티에 태어나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며 사제의 길을 고민하게 됐다. 결국 배 부제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크리스토퍼 부제는 현재 St. John's Seminary를 졸업하고 앞으로 6개월간 부제로서 한인성당에서 봉사한 후 다시 정식 사제서품을 받게 된다. 카톨릭 교에서 부제는 Transitional



부제 서품을 받은 배웅진 부제

deacon으로 사제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 부제의 첫 미사에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였다.

한편 부제 서품 미사 때 보스톤 한인 성당의 카리타스 성가대 24명은 나운영 작곡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곡을 불렀다. 성가대 권정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지휘자는 "시편 23편의 한국 성가를 알리고 싶었고 또한 가사가 부제품에 잘 어울린다. 한국인의 신앙을 단백하고 소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곡이다."라고 선곡의 배경을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독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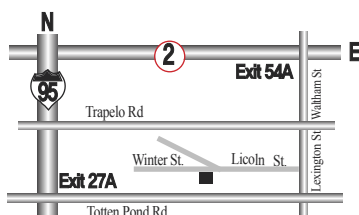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국가간 합의는 존중하되 위안부 문제는 인류의 문제로 기억하고 교육해야

▶▶1면에 이어서  
있었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한일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인 협상을 타결했다. 아베 총리 명의의 사과와 양국 정부가 위안부 보상을 위한 10억엔 규모 재단 설립, 향후 유엔 등에서 상호 비방 자제 등이 골자를 이룬다. 이 협상에 대해 개괄적인 평가를 부탁드린다.

장단점이 있다. 과거 1990년대 아시아여성 기금 사업 예산은 거의 모두 민간 모금 형식이었으나 급변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의 공개적, 공식적 형태의 사죄, 반성 표명" 과 더불어 "일본 정부 예산" 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 책임 표명" 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은 (합의문 1항) 현 아베 정부가 집요하게 부인하던 사항인 점으로 볼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아베 총리가 직접 할머니들에게,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또한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이견이 아직도 나오는 점이 아쉽고 이 문제가 앞으로도 한일간 불신의 촉매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이번 한일 정부의 협상은 일본 수상이 여성 의 명예와 존엄에 대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표현해 과거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고노담화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풀것을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지?

개인적으로는 1993년 고노담화가 오히려 이번 12.28 합의문 보다 직접적으로 위안부 강제 징집과 관련, 일본 정부의 전반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한국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본 수상의 표면상 후회나 사죄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반인도 범죄" 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12.28 구두 합의문은 비록 조약, 협정의 형태는 아니지만 한국 외교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국제사회 앞에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이니 국제법 상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한일 정부 협상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

결론적으로 재협상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합의문은 한국 외교장관과 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7) 할머니는 "어제 외교부 차관 역할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어요.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라며 울먹였다

본 외무대신이 국제 사회를 향해 공언을 한 내용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협상을 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신과 신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재협상이 힘든 이유는, 바로 합의안 내용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합의안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는 말을 담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공조를 통해 중국의 남하를 견제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다. 과거 웬디 셔먼 국방차관도 한국이 과거에 매달려 미래의 동북아 평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은 과거부터 일본 우선 정책을 펴왔

다는 견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차 대전 이후 계속되는 동북아시아의 경쟁 구도는 한,미,일 대 구소련(러시아), 중국, 북한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패전국 일본을 동맹국으로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한국전쟁 시에도 한일간 회담을 조성했는데 일본 측 대표 구보타 카니치로는 미국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기도 전에 대한민국(과거 일본 식민지 한국) 건립을 주도하였고, 한반도 내 일본인 자산을 압류, 일본인 거주자들을 퇴출시켰으므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역설했다. 그러고는 일본의 "의무적" 한반도 식민지화는 큰 혜택을 주었으므로 한국인들은 일본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의 한일간 소위 "중재자" 역할은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안

▶▶5면으로 계속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4면에 이어서  
보문제를 우선으로 취급한다. 한미일  
간의 두터운 동맹으로 팽창하는 중국  
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려  
고 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은 과도  
하게 미국이나 중국의 눈치를 볼 필  
요가 없다. 오늘날 한국의 전략적 입  
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굳건  
하다.

이번 워싱턴 세미나에서 일본의 의  
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혹 세미나를  
통해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  
장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  
다면 말해주실 수 있는가?

1월 11일 (월) 워싱턴 소재  
Woodrow Wilson Center에서 한일  
관계와 12.28 합의문 관련 컨퍼런스  
가 열렸다. 월슨 센터는 미국의회로  
부터 후원받는 초당적, 중립적 연구  
기관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다. 월  
슨 센터는 이번 세미나 발제자 중 하  
나로 최근 <제국의 위안부>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종대 박유하 교수를 초  
대했다. 알고 보니 박교수 항공권 등  
미국 체류비용 외 행사 전체비용은  
일본 와세다 대학과 국책재단에서 지  
원했다.

이번 컨퍼런스 전에 박 교수의 저  
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  
는 부분이 있었다. 저 역시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퍼런스 당일, 박교수가  
비논리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  
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  
국가나 나쁜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협력자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다.”  
“이들 업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국가  
의 책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찰하  
는데도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허탈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가 소녀가 아  
니라 성인이었다는 증거 사료로 놀랍  
게도 “1965년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  
화에 위안부 역할을 한 여자 배우가  
성인이었다” 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런 황당한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여긴 박 교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  
본 정부가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강  
제적 성노예 제도 운영에 대해 책임  
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  
황에서 어떻게 학자가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  
다.

물론 200여명의 청중도 불쾌감과  
충격을 표실했다. 월슨센터 관계자도  
행사 후 저에게 박 교수의 발언이 괴  
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요집회가 1000번째 열렸던 2011년 12월 14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를 형상화한 '평화비' 제막식도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내 9개 지역 30개 도시, 세계 8개국 42개 도시 등에서 연대 행동도 이어졌다

위안부처럼 여성을 성노예로 다루  
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 형사  
재판소가 관할하는 4대 범죄에 속한  
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를 국가간  
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국가간의 합  
의는 합의대로 가고 범죄는 범죄로  
구분해서 계속 다루는 이분법적 접근  
이 필요하지 않는가?

1998년 로마협정(Rome Statute)으  
로 인해 체결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효  
력은 2002년부터 발효되었다. 다시말  
해, 2002년 이전의 전쟁범죄나 반인  
도범죄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국제  
법상 오늘날 한국이나 그 어떤 다른  
피해국도 일제의 위안부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제가 수 만, 수 십만명의

어린 소녀와 여성을 한국 외에도 대  
만, 동남아에서 강제로 징집해 이송,  
구속 및 집단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오늘 날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의  
정의 중 하나다. 일제의 위안부 문제  
는 도덕적으로 엄연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 나아  
가서 인류 공동체의 관심사이다. 국  
가와 국가간의 합의로 영원히 “최종  
적이며 불가역적으로” 문을 닫을 수  
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반드시 영원히 기억하고, 기  
리고, 가르치고, 가슴에 두어야만 하  
는 인류 전체의 문제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원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1 미신협 회원사 | 세한인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보스톤 한인회 신임 이사장에 안병학 전회장

## 지역 단체장 초청 보스톤한인회 신년 하례식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동북부 한인연합회장을 역임한 안병학씨가 보스톤 한인회 신임 이사장을 맡게 된다.

김경원 한인회장은 8일 보스톤 소재 서울식당에서 열린 신년 하례식에서 안병학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개편에 대해 밝혔다.

김 회장은 “구정회 이사장이 일산의 문제로 이사장직을 사임해 안병학 고문에게 부탁해 수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미 한인회장은 물론, 이사장 그리고 미동북부 한인회연합 회장까지 지냈지만 부탁을 수락해 주셨다”고 말했다.

안병학 신임 이사장은 “김 회장이

지난 한해 한인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고 모든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보며 작은 힘이지만 직위의 높낮이를 떠나 모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이사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수락이유를 밝혔다. 한인회 신임임원으로는 한인회 수석 부회장에 종이접기문화재단 윤미자 이사장이, 사무총장에는 남진병 전 한인회 문화부장이 임명 되었다. 지난해 수고한 김도운 사무총장은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문화예술부장에는 유희주 시인과 원숙경씨가, 회원관리부에는 박윤희 국제선 부회장이, 대외협력부에는 전 보스톤코리아

기자였던 김현천씨가 임명 되었다. 그의 모든 부서는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다.

새롭게 영입된 임원들은 안병학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 시 인준절차를 거쳐 3월 개최될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경원 회장은 이날 하례식에서 10월3일 보스톤 한국의 날은 한인회의 행사가 아닌 뉴잉글랜드지역 전체의 행사인 만큼 모든 단체들이 뜻을 모아 가장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한인회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한편 보스톤한인회는 한국의 날 조직위원장에 한인회 수석 부회장인 윤미자씨를 선임하고 향후 진행될 모든 행사를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김경원 한인회장은 8일 보스톤 소재 서울식당에서 열린 신년 하례식에서 안병학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개편에 대해 밝혔다

## 뉴햄프셔 신년파티 및 회장 이취임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뉴햄프셔 샐러드 소제 샐러드 엘크스클럽에서 신년하례식 및 제 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박선우 회장이 이임하고 조은경 회장이 취임한다. 한인회는 신년 하례식 이후 저녁만찬과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파티에서는 서울 왕복 비

행기표를 비롯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나눠준다.

파티 참가비는 \$30이다. 참가 문의는 603-767-1356, 603-397-7039번으로 하면 된다.

일시: 2016년 1월 23일(토요일) 오후 6시

장소: Salem Elks Club

39 Shadow Lake Rd.

Salem, NH 03079

bostonkorean@hotmail.com

## 한달여 남은 재외선거 등록 전체의 4.17%만 극히 저조

11일 현재 8만2,529명  
영구명부 등재자 반영으로 크게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기간이 33일 남은 가운데, 1월11일 현재까지 총 8만 2,529명이 재외선거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의 4.17%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실시된 재외선거등록 결과를 매주 집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만6,900명(2015년 12월21일), 3만1,901명(2015년 12월27일), 3만 9,524명(2016년 1월3일) 등으로 소폭 상승해왔다. 하지만 11일 조사에서는 1주일 전보다 4만3,005명 상승했다. 영구명부 등재자 수가 전체 집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재외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마다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9일 통과시켰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참여했던 미국 영주권자 등이 이번 집계에 합산됐다.

11일 집계 결과 국외부재자 신고자는 3만5,889명, 재외선거인 신청자는 3,365명, 영구명부 등재자는 3만6,662명이었다.

공관별로 보면 그동안 재외선거 등록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던 상해총영사관이 5위로 처지고 일본대사관(6,743명)이 1위로 올라섰다. 오사카총영사관(5,524명), LA총영사관(4,536명), 뉴욕총영사관(3,990명), 상해총영사관(3,024명) 등이 뒤를 쫓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보스톤 주요 단체 북한 핵 도발 규탄대회

대부분의 한인단체들이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는 10일 보스톤 지역 주요단체들과 뜻을 모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 평통, 보스톤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이북 5도민회, 보스톤재향군인회, 보스톤한미노인회, 시민협회 등 대부분의 한인단체들이 참

여했다.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과정들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그 어떤 비난과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5개항으로 된 한인단체들의 성명서는 유엔과 한국정부, 중국정부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핵실험 및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규탄 성명 참여 단체 (무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Korea War Veterans/보스톤 한인회/로드아일랜드 한인회/뉴햄프셔 한인회/보스톤 이북 5도민회/보스톤 재향군인회/보스톤 한미노인회/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한국전 참전 국가 유공자회/해병 전우회/보스톤 나라 사랑회/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국제선 보스톤지회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월 9일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2016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이사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KCSB: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는 지난 1월 9일(토)에 웰슬리(Wellesley) 소재 블루진저(Blue Ginger) 레스토랑에서 2016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병국 회장을 비롯해 기존의 이사들과 새로운 임원 등 20여 명이 모여 3시간 여 동안 2015년도 행사 이모저모와 그에 따른 결산, 2016년 행사 계획과 예산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예술협회의 주요 계획은 2/6일(토) MFA 규정 축제, 2/19~3/26일까지 브랜다이즈 대학에서 전시회, 3/14일~21일까지 브랜다이즈 대학에서 국악 공연, 9월/10월 연례 전시회 등이다.

예술협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것은 3월에 있을 국악인 초청 국악 공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미 예술협회 홈페이지(www.kcs-bost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10일 평통신년하례식에서 평통자문위원들과 보스톤단체장들이 함께 북핵실험규탄대회를 가졌다

# 민주 평통 신년 하례식 및 전체회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6년 17기 민주평통의 신년하례식 및 전체회의가 래싱턴 소재의 아발론 힐 클라인 오토리움에서 열렸다.

민주 평통 자문위원과 지역 단체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엄성준 총영사, 조봉섭 로드아일랜드회장, 조은경 뉴햄프셔회장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엄성준 총영사는 현재 한반도에서

발생한 북핵문제와 한일 위안부협약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고 동포사회에서 평통협의회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한선우 민주평통 회장은 “지속가능한 통일 준비체계가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 평통 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켰다. 황우성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오준대

사 강연과 김기철 미주 부위원장 강연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윤영 고문의 건배제외로 저녁식사를 시작했으며 조진행 위원의 사회로 퀴즈 맞추기, 선물교환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한선우 회장 평통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 새생활센터 무료 건강검진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1월 16일 토요일 무료 건강검진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서비스는 매사추세츠 주민 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제공되며 무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이 포함된다. 내과는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의 진찰 순서는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날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면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건강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Flu Shot)은 오는 14일부터 한달동안 매주 오후 1시 ~ 2시까지 받을 수 있다. 진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317-374-4786 혹은 781-279-3270)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풋볼 상식 2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35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캔사스시티 칩스와 플레이오프전을 치른다. 뉴잉글랜드로서는 플레이오프 첫 경기다. 캔사스시티 칩스는 지난주 휴스턴 텍산스를 30-0으로 꺾고 11연승을 거뒀다. 스포츠에는 꼭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 있는데 칩스가 지금 그렇다. 패트리어츠로서는 버거운 상대다. 올해 패트리어츠의 플레이오프 스케줄은 지금까지 상태로서는 최악이다. 패트리어츠가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자못 흥미롭다.

지난주에는 풋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다운(Down)에 대한 설명과 공격팀 그리고 수비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주에는 스페셜 팀에 대해 가볍게 언급하고 바로 풋볼의 주요 용어 그리고 규정에 관해 설명해 풋볼 경기관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스페셜팀

스페셜 팀은 킥 플레이를 담당하는 팀이다. 주로 필드골을 시도하거나, 펀트, 경기를 시작하는 킥오프를 할 때 팀이 담당한다.

필드골을 시도할 때나 보너스킵(point-after-touchdown)을 담당할 때 킥커와 볼을 길게 스냅하는 스냅퍼 그리고 볼을 잡아주는 홀더가 있다. 리시빙 팀에는 킥오프 리터너가 스페셜 팀 포지션으로 있다.

공격팀이 10야드를 전진하지 못해 펀트를 시도할 경우에는 펀터와 롱스

내퍼 그리고 거너(Gunner)가 있다. 거너는 펀터가 볼을 찬 순간 필드를 내달려 상대진영 펀트 리터너에게 달려가 그를 태클하는 임무를 맡는다. 대표적인 패트리어츠 거너는 매튜 슬레이터(18)이다.

### 가장 기본적인 풋볼 용어

**킥오프(Kickoff):** 플레이를 시작하기 위해 1쿼터와 하프타임 후 3쿼터에 볼을 상대 진영으로 차주는 것을 킥오프라 한다. 또한 터치다운 또는 필드골 득점 이후 상대진영에 킥오프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킥오프는 자기진영 30야드 지점에 킥오프 티에 볼을 놓고 양 옆으로 5명씩 10명의 선수가 선다. 10명의 거너들은 킥오프 된 볼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필드를 내달려 킥오프 리터너가 볼을 잡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태클해야 한다.



킥오프 된 볼은 약 70야드를 4.5초 정도의 시간을 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킥오프 리터너가 엔드존에서 손을 들어 볼을 받는다는 신호를 하거나 볼을 받고 무릎을 터치(knee down)하면 20야드 지점에서 리턴팀의 공격이 시작된다.

엔드존 이전에 리터너가 볼을 받아 리턴을 시작하면 킥오프 팀은 가장 엔

드존에 가까운 지점에서 리터너를 태클해 공격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리터너는 볼을 들고 상대방 엔드진영까지 내달려 터치다운 하는 것이 목표다.

**페어 캐치(Fair catch):** 펀트 리터너가 팔을 옆으로 뻗어 위로 올리는 신호를 하면 이를 페어 캐치라고 한다. 이 신호를 하면 리터너는 볼을 잡고 뛰지 못한다. 또한 리터너를 태클하기 위해 뛰어난 선수들은 리터너를 터치하거나 태클해서는 안된다.

**온 사이드 킥(onside kick):** 킥오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볼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인데 반해 온 사이드 킥은 볼 소유를 목표로 한다. 보통 자기진영 35야드 지점에서 킥오프를 하며 공이 땅에 바운스되도록 킥을 해 상대 수비진영이 볼을 잡기 힘들게 해야 한다. 이 때 거너들이 달려가 풋볼을 획득하면 된다. 다만 킥 팀은 볼이 10야드가 가기 전에 볼을 잡아서 안된다. 10야드 전이라도 수비진영이 볼을 터치하게 되면 볼을 확보해도 된다.

**엔드 존(End zone):** 풋볼 필드의 각각의 엔드라인 뒤에는 10야드의 엔드존이 있다. 공격팀이 볼을 소유한 채로 엔드존에 진입(러닝 공격)하거나 볼을 패스해 리시버가 받게 되면(단 확실하게) 볼을 소유(possession)하고 두발이 모두 엔드존 안에 있어야 터치다운(Touchdown)을 인정한다. 공격팀이 터치다운을 인정받으면 6점이 주어진다.

**엑스트라 포인트(Extra point):** 모든 터치다운 이후에 추가로 주어지는 보너스 킥 점수다. 일반적으로 2야드 라인에서 스냅하며 10야드 라인 이내에서 홀더가 볼을 받은 후 킥커가 킥을 한다. 볼이 골 포스트 안 또는 위쪽으로 지나가는 경우 이를 추가 1득점으로 인정한다. 대부분 자동적인 점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추운 날씨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추가득점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1점이 승패를 가리기도 한다.

**필드골(Field goal):** 공격팀이 공격을 진행하다 서드 다운을 성공(Third down conversion이라함)하지 못하면 포스트 다운에는 필드골 또는 서드 다운을 시도한다. 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상관없지만 필드골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포스트다운을 시작했던



지점에서 볼을 상대진영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대진영 35야드 지점에서 시도 가능지역으로 여긴다. 특히 볼을 스냅해서 실제로 킥을 하는 곳은 스냅 장소보다 약 5-7야드 지점에서 킥을 하고 엔드존 10야드 끝에 골 포스트가 있는 것을 계산하면 실제 거리가 나온다. 35야드 지점에서 스냅을 해서 7야드 뒤 지점인 42야드에서

킥을 해서 성공했다면 이는 52야드 필드골 성공이 된다. NFL에서 가장 긴 필드골은 2006년 10월 22일 탐파베이 매트 브라이언트가 필라델피아전에서 성공시킨 62야드 필드골이었다.

**펄블(Fumble):** 공격팀이 공격을 진행하다 상대방의 태클에 의해 볼을 놓치는 것을 펄블이라 한다. 공격팀이 그 볼을 되찾으면(recover) 공격권을 볼을 되찾은 지점에서 다시 다운을 시작하고 수비팀이 볼을 획득하면 공격권을 갖게 된다. 선수들의 볼에 대한 집중력이 중요하며 평상시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 길러진다. 야구의 수비 실수(Error)에 비견되며 이 한 펄블로 인해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NFL에서 가장 펄블이 적은 팀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이며 그 다음이 캔자스시티 칩스다.

**인터셉션(Interception):** 공격팀 쿼터백의 패스를 수비팀의 선수가 받는 것을 인터셉션이라 한다. 공격도중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주는 두가지 형태가 인터셉션과 펄블이다. 펄블은 주로 러닝공격중에 많이 일어나고 인터셉션은 패스공격중에 일어난다.

**인컴플리션(Incompletion):** 쿼터백이 전방으로 던진 공이 수비수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를 인컴플리션이라 한다. 공격수가 볼을 받은 후 완벽하게 볼을 추스리기 전에 상대 코너백 등의 수비수가 볼을 쳐내어 패스가 불발되었거나 리시버가 볼을 놓쳤을 때 >>9면으로 계속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턴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턴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풋볼의 기본 상식 망라

▶▶8면에 이어서  
때도 이를 인컴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드라이브(Drive): 공격팀이 공격을 시작해 득점하거나 펀트, 턴오버 등으로 상대 공격팀에게 볼을 넘기기 전까지의 일련의 플레이를 드라이브라 한다.  
해쉬마크(Hash marks): 풋볼필드 한 가운데 1야드 별로 표시한 하얀 줄을 말한다. 심판진은 볼을 가진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태클을 당해 무릎이 땅에 닿았을 때 볼의 위치를 해쉬마크를 통해 파악하고 그곳에서 다시 다운 스냅을 시작토록 한다.



스냅(Snap): 공격팀의 센터가 쿼터백에게 가랑이 사이로 볼을 던져주는 것을 스냅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공격이 시작된다. 때로는 포스다운에서 펀터에게 길게 던져주는 것을 롱 스냅이라고 한다.

라인오브스크림지(Line of scrimmage): 선수들의 플레이가 끝나면 심판은 볼의 위치를 알리는데 이 볼을 기점으로 좌우로 긋는 상상의 선. 다시 스냅을 통해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격팀과 수비팀은 이 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색(Sack): 수비팀의 선수들이 라인 오브스크림지 오픈시브 라인 선수들을 뚫고 들어가 쿼터백을 태클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상당수의 야드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쿼터백이 색을 당하는 경우는 오픈시브 라인이 쉽게 상대방을 블럭하지 못했을 때이며 두 번째는 와이드 리시버 등이 와이드아웃(wide out)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색을 당한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 쿼터백 탐 브래디는 스냅을 받은 후 패스를 하기까지 가장 빨리 볼을 처리하는 선수로 꼽힌다.



세이프티(Safety): 수비팀의 선수들이 볼을 소유한 공격팀 선수를 공격팀 엔드존에서 태클링을 하게 되면 2점의 점수를 획득하는데 이를 세이프티라고 한다.

레드존(Red Zone): 상대 진영의 엔드라인에서 20야드 이내의 존을 레드존이라고 한다.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으로 이끄는 공격이 가장 이상적이며 공격팀의 찬스에 강한 면모를 의미한다. 수비팀은 레드존에서 상대방이 터치다운이 아닌 필드골로 마감토록 하는 것을 보통 승리로 인식하며 위기상황에서 수비팀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editor@bostonkorea.com

## 2016년 1, 2월 보스턴 공연 이벤트 정보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1월

UFC 파이트 나이트

일자: 1월 17일

장소: TD 가든

UFC 초대 밴텀급 챔피언인 도미니크 크루즈 (21전 20승 1패)와 현 챔피언(3대)인 T.J. 딜라소 (14전 12승 2패)의 밴텀급 타이틀 전 경기. 챔피언 결정전이자 라이벌전이며, 구 챔피언과 현 챔피언의 자존심 싸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두 선수 모두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스텝기술을 보여 원조 스텝왕과 후속 스텝왕의 대결이라고도 일컬어 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십자인대 부상 이후 타이틀을 상실했던 도미니크 크루즈가 이번 타이틀 결정전으로 밴텀급 챔피언에 재 등극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정보:

<http://www.ufc.com/event/ufc-fight-night-boston-2016>

입장권 구매: 티켓 마스터, (\$50 ~ \$2,000, 세금/봉사료 별도)



2월

폴라텍 빅 에어 (POLARTEC BIG AIR)

일자: 2월 11일-12일

장소: 펜웨이파크

'빅 에어

'는 평창

올림픽에 소개

될 예정의 동

계 스포츠로,

소치 동계 올

림픽에 첫 정

식정목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설상

종목 '슬로프 스타일'의 익스트림

버전이다. '슬로프 스타일'은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고 활강하

는 동안 여러 가지 도약대와 장애물

을 이용하여 다양한 묘기를 연출하

는 경기다. 이에 반해 빅 에어는 스

키점프대와 같은 더 높고 급격한 활

강코스를 이용하여 더 극적이고 아

찢힌 곡예를 선보인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 외야에서 내야 홈플레이트로

이어지는 간이 스키점프대가 건

설 될 예정이다.

관련 정보: [http://boston.red-sox.mlb.com/bos/ticketing/big\\_a](http://boston.red-sox.mlb.com/bos/ticketing/big_a)

ir.jsp

입장권 구매: 레드삭스 공식 홈

페이지 (1일 권 \$30~100, 2일 권

\$40~160, 세금/봉사료 별도)



\$40~160, 세금/봉사료 별도)

자넷 잭슨 월드 투어 (Janet Jackson: Unbreakable World Tour)

일자: 2월 26일

장소: TD 가든

1982년 데뷔한 미국의 팝스타로 우리에게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마돈나와 더불어 살아있는 전설적인 댄스 가수이며, 마돈나에 이어 80년대부터 2010년대 까지 40년에 걸쳐 빌보드 앨범차트의 1위를 기록한 유일한 여성 가수다. 2004년에는 슈퍼볼 공연 중 저스틴 팀버레이크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니플게이트 사건'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그러나 작년 5월, 7년만에 발표한 앨범 "Unbreakable"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복귀하였다. 비운세, 보아, 바다, 아무로 나미에 등의 여성 댄스 가수들이 가장 닮고 싶은 스타로 많이 언급되어 왔으며, 박남정의 7, 8춤, 롤라의 엉덩이 춤 등 국내 가수들의 안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입장권 구매: 티켓 마스터 (\$26~135, 티켓 마스터, 세금/봉사료 별도)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모든 약제 없이도 각종 통증질환
- ② 두통, 관절염, 허리통증, 어깨통증, 손목통증
- ③ 비만, 다이어트, 다이어트 프로그램
- ④ 만성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비만, 다이어트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노인
- ⑧ 노인 재활치료, 노인 재활 프로그램
- ⑨ 노인 재활치료, 노인 재활 프로그램

781.862.1842  
www.grace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학업 지도 튜터링

####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주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로 꼽혀

명문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주요인  
캘리포니아는 2위, 미시시피 주가 최하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innovative state)로 선정되었다. 블룸버그 리포트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사추세츠 주가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렉싱턴에 소재한 IHS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나리만 베흐라베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매사추세츠 주가 1위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우수한 교육 기관을 꼽았다. 베흐라베쉬는 “매사추세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대학들이 있고, 이 대학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아주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 고 말했다.

베흐라베쉬에 따르면 지난 20-30년 동안 MIT 졸업생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설립한 기업만 400개 이상이다.

블룸버그가 혁신적인 주 순위를 매길 때 평가한 주요 항목 중의 하나가 각 주에 위치해 있는 기업의 개수다. 기업의 시장 가치가 아닌 기업의 개수

를 평가했기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가 캘리포니아를 누를 수 있었다. 만약 기업의 시장 가치를 평가했다면 미국 IT 기업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애플이 위치한 캘리포니아가 혁신적인 주 1위를 했을 것이다.

혁신적인 주의 순위를 위해 블룸버그는 기업의 개수 외에도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정도, 기업의 생산

성,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 이공계 학위 소지자, 특허 개발 및 지원 현황 등을 분석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커네티컷 주가 5위에 이름을 올려 상위권을 기록했다.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혁신적인 주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주는 미시시피였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가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로 꼽혔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 MA주 휘발유 가격 계속 하락세

1년 전 휘발유 가격보다 30센트 더 저렴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트리플에이(AAA)에 따르면 셀프 주유, 레귤러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1.95달러로 지난 주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다. 갤런당 1.95달러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도 1센트가 저렴한 것이며, 매사추세츠 주의 1년 전 휘발유 가격보다는 30센트 더 낮은 가격이다.

셀프 주유, 레귤러 휘발유 가격

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갤런당 1.79달러였으며, 가장 비싼 곳은 2.19달러였다. 트리플에이는 통상적으로 1월이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가장 적은 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크루드산 오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미국 내 휘발유 생산도 증가하고 있어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 ✓기력회복    ✓항암효과
- ✓면역력증진    ✓혈액순환 개선
- ✓당뇨 합병증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축축함 그 이상의 뿌리 보습  
동인비초오일

동인비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포두샷 튜터링

Nabis Studio

#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 보스톤 이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내 가장 유명한 기업 중의 하나인 GE가 본사를 현재의 커네티컷 페어필드에서 보스톤 시포츠지역으로 이전한다.

GE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약 800여명의 본사직원들이 보스톤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글로벌은 이보다 이른 아침에 이전 확정 소식을 보도했었다.

GE CEO 제프리 임펠트는 성명서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곳이며 세계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인력들이 있는 곳"으로 "다이내믹하고 창조적인 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GE의 보스톤 이전은 무엇보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의 업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GE는 그동안 많은 시와 주에서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기업으로 베이커와 월시는 다각적인 협력으로 이 기업들을 유치했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GE 측은 그동안 약 40여개의 후보지를 두고 본사이전을 타진해 왔으며 특히 보스톤을 비롯해 뉴욕, 프로비던스, 애틀란타 등을 중심으로 최종 후보지를 놓고 고심해왔다.

"보스톤은 기업의 생태시스템, 인재, 장기적인 비용, 직원들의 삶의 질, 다른 회사자 직원들에 대한 접근용이성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선택되었다"고 GE 측은 밝혔다.

전 매사추세츠 주택경제개발부 크레고리 비어택키 씨는 GE가 그동안 커네티컷 주의 예측 불가능성에 진저리가 났으며 새로운 혁신으로 거듭나고자 이 같은 이전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커네티컷 상원은 지난해 기업

세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어택키 씨는 "보스톤은 동부 첨단산업의 수도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보스톤의 첨단 산업에서부터 최고 대학까지의 각종 재원을 이용키로 한 GE의 이전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월시 시장도 "GE의 이전결정은 보스톤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하고 "GE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GE가 보스톤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상 보스톤시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많은 혜택 제공이 바탕이 됐다. 보스톤 시는 GE에 향후 20년 동안 2천5백만불에 달하는 프로퍼티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는 약 1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각종 그랜트 및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GE는 올 여름부터 임시 건물에 일부 직원들이 이전할 계획이며 전면적인 이전은 2018년까지 몇 단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스톤글로벌은 이번 GE의 이전으로 인해 보스톤은 생명공학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허브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GE는 현재 전력 및

클린에너지, 석유가스, 항공, 의료과학 등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업종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스톤의 환경은 GE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스톤에도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GE의 이전 의사 타진 이후 몇 후보지 신청주는 강력한 유치 경쟁에 돌입했었다. 뉴욕과 조지아 주의 경우 일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유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매사추세츠주는 일부 다른 주들과 함께 조용히 비공개적으로 접근하며 GE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결국은 뉴욕과 보스톤의 최종 결전이었으며 보스톤의 승리였다. 보스톤의 첨단산업과 유명 대학이 결국은 마지막 선택을 가르는 조건이었다. 이로써 보스톤은 향후 고소득 직업군의 유입과 법인세 증대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글로벌은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보스톤이 최고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자랑거리라고 지적했다.

GE는 보스톤이 테크놀로지를 이끄는 도시임을 입증해 준 것이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 렌트비 미국내 4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은 2016년에도 미국 내에서 살기 가장 비싼 곳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보스톤은 여전히 미국내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나마 렌트비 상승세는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은 지난해 1베드룸의 경우 1.2% 렌트비 상승에 그쳤지만 샌프란시스코의 5.5% 상승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다. 렌트전문 사이트인 아파르트먼트리스트(Apartment List)에 따르면 미전국적으로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평균 렌트비는 원베드룸의 경우 3.6%, 2 베드룸의 경우 2.6%상승했다.

12월의 경우 보스톤의 2베드룸 렌트비는 1.3%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스톤의 2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월 \$2,650으로 미국내 4번째로 비쌌다.

가장 렌트비가 비싼 곳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순이었다.

이번 아파르트먼트 리스트의 자료는 보스톤 시 렌트비만을 조사한 것이다. 과거 보스톤글로벌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메트로 지역의 렌트비는 2015년 한 해동안 5.7% 인상됐으며 평균 아파트 렌트비는 월 \$2009이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시, 60세 이상 집앞 보행로 제설 면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티토 잭슨 보스톤 시의원은 13일 보스톤 거주 60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눈폭설시 집 주변 도로 제설작업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도 적용된다.

현재 보스톤시 법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폭설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집 주변 도로를 제설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처럼 역사상 최고의 폭설이 쏟아졌을 때에는 이 같은 제설작업은 거의 약물에 가깝다. 지난해 4000개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으며 제설이 안된 보행로를 피해

보행자들은 찾길을 통해 다니는 어려움을 겪었다.

잭슨 시의원은 고령자들의 경우 겨울철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삼가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이런 고령자들에게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고령자들이 고정된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이 같은 벌금은 이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잭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우선 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개조업자.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한 MBA를  
출신하고 미네아폴리스 BOSTON-CAMBRIDGE 지역으로  
향상되고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업률 3.4%를 기록하고, 100% 이상의 고객 서비스를 인정받  
고있는 보행로로 3차원 가격 책정 시기와 때를 도와  
드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목의 정확,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r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 역, 학교, 상점, 참나무로 둘러싸여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약정되어 계약되어 있음.  
현재 Allston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 '불안한' 힐러리, 오바마 샌더스와 대립각

## 오바마와는 불체자 추방에서 대립, 샌더스와는 총기 규제에서 다른 의견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장재은 기자 =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를 놓고 이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AP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전날 첫 아이오와 주(州)에서 열린 소수계 유권자 겨냥 민주당 포럼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연말 휴가시즌 때 불거진 불법체류자 (단속)물어는 대추방으로, 분열과 공포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불법 이민자들과 동반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정부 변호인을 보장하고 이민법정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들을 최우선으로 추방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현재 중미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급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증남미 사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경쟁자들조차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철저히 '코드'를 맞춰 온 클린턴 전 장관이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를 공개로 거론한 것으로 이상 조짐을 보이는 최근의 지지율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

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이메일 스캔들'과 '벙가지 약재' 등의 수렁에서 벗어나 경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다시 대세론을 굳히는 모양새였으나 최근 들어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대선 경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샌더스 의원이 턱밀까지 치고 올라와 아이오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 뉴스의 최근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48%, 샌더스 의원은 4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전 장관이 샌더스 의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총기 규제에 대한 이슈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동안 샌더스의 원이 과거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반대할 것을 거론해, 그가 총기규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월 2011년 총격사건의 희생자인 가브리엘 기포드 전 의원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전날에는 '엘런 디제너러스 쇼'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총기 규제 행정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총기폭력으로 하루아침에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뭐라 할 말이 없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에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공개하면서) '총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sims@yna.co.kr



힐러리 클린턴(왼쪽),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 상단), 버니 샌더스(오른쪽 하단)

# 힐러리 '8년전 악몽' 재연되나... 아이오와·뉴햄프셔 역전 허용

## 아이오와 경선 20일 남기고 샌더스 초기 2대 경합주 역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주별 경선 레이스의 첫 2개 주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에 게 모두 역전을 허용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아이오와 주 경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9월 이래 처음으로 이 주와 2번째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 주(2월9일) 모두에서 여론조사상 선두를 내준 것이어서 힐러리 측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8년 전 아이오와 주 경선에서 3위에 그치며 결국 버락 오바마 당시 후보에게 당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주는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주들로 대선 주자들은 누구나 이 곳에서의 승리로 주도권을 잡고 그 여세를 몰아 당 후보를 거머쥔다는 선거전략을 세운다. 2곳을 모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곳은 건져야 남은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5~10일 492명의 민주당 성향 아이오와 주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샌더스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49%에 달해 45%에 그

친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섰다. 한달 전 힐러리 전 장관은 같은 조사에서 51%의 지지를 얻어 샌더스 의원을 11% 포인트 앞섰으나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30% 포인트 리드를 지켰으며, 경제 분야에서 클린턴 전 장관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와 함께 몬마우스 대학이 지난 7~10일 뉴햄프셔 주의 민주당 성향 유권자 413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샌더스 의원은 53%의 지지를 확보해 39%에 그친 클린턴 전 장관을 압도했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는 클린턴 전 장관이 48%로 샌더스 의원을 3% 포인트 앞섰다.

퀴니피엑 대학 측은 "클린턴 전 장관이 뉴햄프셔 주에서는 샌더스 의원에 뒤지곤 했지만, 아이오와 주에서는 지난달만해도 두 자릿수 우위를 보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아이오와 주가 샌더스 의원에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학은 "아이오와 유권자들은 샌더스 의원이 클린턴 전 장관에 비해 자신들과 더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더 정직하고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hin@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ahoo.com

**COLDWELL BANKER**  
SIRYUN KIM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학군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저유가로 내년에 미 에너지 업체 3분의 1 파산 전망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까지 내려가면서 미국 에너지업체에 파산이 심해진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업체들 가운데 최대 3분의 1이 내년 중반까지 파산에 몰리거나 구조조정을 당할 것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유가가 최저 50달러는 돼야 일부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펌인 헤인스 앤드 분에 따르면 유가가 하락 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여개의 영세 업체들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로, 이들의 부채만도 합계 130억 달러에 이른다.

컨설팅 회사인 엘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북미의 석유·가스 생산업체들은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에 머무는 요즘에는 매주 2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코언 앤드 컴퍼니는 미국 생산자들이 올해 예산을 2014년보다 51% 적은 89억 달러로 삭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축소폭은 최악의 유가 하락 사이클이 도래했던 1980년대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투자은행들과 석유 애널리스트들, 에너지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석유의 공급 과잉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막 삭스, 씨티 그룹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 달러화의 강세,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증산을 멈출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가 30달러 문턱을 통과, 단기간에 20달러대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주에 나온 보고서에서 현재의 시장 환경은 최악의 유가 하락이 발생했던 1986년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은행의 마틴 라츠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유가 하락 사이클은 과거 5회의 하강 사이클보다 더 깊고 길다고 말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유가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의 생산업체들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활황기에 막대한 부채를 진 석유와 가스 회사들은 이자를 상환할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으로써 더욱 신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S&P 캐피탈 IQ에 따르면 샌드리지 에너지와 에너지 XXI, 헬컨 리소시즈와 같은 기업들은 지난해 3분기의 매출 가운데 40% 이상을 이자 상환에 소진했다. 에너지 XXI의 그렉 스미스 IR담당 부사장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억 달러 이상의 회사채를 되사들었다고 말했다.

재정상태가 좋은 기업들조차도 증산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 세일 오일 업체에서 가장 성공적인 업체들인 코노코 필립스와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즈는 올해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파이오니어 리소시즈의 스킨크 셰필드 CEO는 저유가 상황이지만 자사 유전들의 채산성이 높은 덕분에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14억 달러의 신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다.

반면에 궁지에 몰려 있는 회사들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크레딧 라인을 연장함으로써 버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1천억 달러가 넘는 사모펀드의 자금이 에너지 회사들의 자산 매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한 회사들을 인수하게 되면 거액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 합병이나 인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대기 자금들은 자산이 헐값에 매물로 나오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것이다.

jsmoon@yna.co.kr



## 뉴욕 성폭력 범죄 증가...경찰 "특히 택시 탈 때 주의"

지난해 전반적인 범죄 감소에도 성폭력 범죄는 6% 증가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지난해 뉴욕에서 발생한 범죄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지만, 택시 내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늘어났다.

뉴욕경찰(NYPD)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뉴욕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1천439건으로 전년(1천354건)보다 85건, 6%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다.

이 중 낮은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건수는 117건에서 166건으로 42%나 증가했으며, 택시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도 10건에서 14건으로 늘었다.

NYPD는 연초부터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를 경고하고 나섰

다. NYPD의 더모트 셰야 부국장은 "여성들은 밤늦은 시간에 안전하게 귀가 하려고 택시를 이용한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한적한 곳에서 성폭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국장인 윌리엄 브래튼도 밤늦게 택시를 부르는 여성들은 혼자자 아닌 짝을 이루도록 지난주 권유했다.

이는 새해 첫날 새벽에 맨해튼에서 택시를 타고 뉴저지 주로 가던 여성이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가 택시 기사가 몸을 더듬는 것을 느끼고 깨어나는 등 택시 안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새해

들어서도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것이었다.

택시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안전 조치를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우버 기사를 포함한 택시 기사에게 면허증을 발부하는 택시·리무진위원회인 앨런 프롬버그 대변인은 "면허를 내 줄 때 지문을 조회해 범죄경력 파악한다. 또 기사가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전설적인 영국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

## 보위, 정체성 혼란 청소년들에 희망 줬다" 성소수자에도 물결

흑인가수 인권도 옹호, 새로운 시도 '보위 채권도 재조명'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전설적인 영국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온라인 영어사전에서 양성(양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중성이라는 뜻의 '앤드러지너스(androgyne)'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사람이 급증했다.

AP통신과 AFP통신은 보위가 생전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산해 성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과 성적 소수자들에게 힘을 줬다는 점에서 재조명 받고 있으며 이들이 특히 보위의 죽음에 애도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위는 성 정체성에 구분을 두지 않은 중성적인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고 인정받았다. 성적으로 여러 범주를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멜레온 같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혔다가 다시 양성애자라고 밝혔으며 결국에는 아무데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972년 음반에서 보위가 자신의 페르소나로 내세운 캐릭터인 '지기 스타더스트'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성별이 딱 떨어지지 않는 외계인이었다.

이후 1974년 '레벨 레벨'이나 1995년 '헬로 스페이스보이' 등에서도 '소년인지 소녀인지 확실치 않아' 등의 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성성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에 그의 존재와 성공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로써 그들을 탈선과 자살 위험에서 구해냈다고 많은 이들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 가수 메리 고세이는 자신의 트위터에 '데이비드 보위는 배턴 루지 출신의 이 이상한 아이(고세이 자신)에게 성(性)에서 벗어난 무법자는 멋지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중성이라는 것은 내가 자살할 이유가 아니라 로큰롤과 같다"고 썼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도 14~15살 때 '지기 스타더스트'를 접하고 자신이 성적 규정에 벗어난 무법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보위는 말로 설명하거나 주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나타났다"며 "그는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 작가 스티브 실버먼도 트위터에 "안녕, 데이비드. 당신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외계에서 온' 아이들 수백만의 목숨을 구했어. 평화롭게 영면하기를"이라고 썼다.

새라 케이트 엘리스 동성애차별 반대연합(GLAAD) 대표는 "보위는 영원히 많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가슴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그는 성 정체성과 성적 경향으로 소외된 이들의 등불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다른 명사들도 "이상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보위의 공을 기렸다.

영화감독 키에르토 델 토로는 트위터에 "보위가 존재했기에 우리 부족응자들은 '이상함은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며 "그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보위는 성적 소수자뿐 아니라 흑인 예술가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인 록가수의 뮤직비디오가 MTV를 점령했던 1983년, 보위가 '렛츠 댄스' 홍보를 위해 VJ 마크 구먼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몇달간 MTV를 보면서 왜 흑인 아티스트는 거의 나오지 않는지 의아했다"며 "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런 발언을 예상치 못했던 구먼이 "MTV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에둘러 답하자 재차 "흑인 아티스트들은 왜 MTV에 안 나오는지 놀랄 만한 훌륭한 비디오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응수했다. cherora@yna.co.kr

# 백내장 수술도 이제는 맞춤시대! ... “나에게 맞는 수술 찾아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 맞춤 백내장 수술로 안경으로 인한 불편한 삶을 던져 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백내장 수술도 시력교정 수술처럼 개인별 눈 상태에 따라 맞춤 백내장이 유행이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수정체 노화증상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은 한국 인구 중 60대에는 50%, 70대에는 70%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술건수의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수술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노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백내장 수술의 안전과 수술 후 결과의 안전도를 말해주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과 노인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년증상에 함께 눈이 침침하면서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다.

노안증상과 백내장 증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안은 가까운 글자가 어느 날 흐릿하게 보이며 침침함을 동반한다고 하면 백내장의 경우는 시야가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리게 보이며 오히려 어두운 곳에 가면 잘 보이는 현상을 동반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적절한 시기에 해야 백내장수술은 진단과 함께 바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더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약물로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수술을 권유받게 된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한다고 해서 노화된 수정체가 다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는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시기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데 백내장 수술은 너무 미루다가는 오히려 수술과정이 어렵거나 눈 속의 백내장이 녹아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병원에서 전문의의 수술 권유가 있다면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눈이 침침해지는 40대~50대가 되면 안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때 노안진단과 함께 간혹 백내장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노안과 함께 백내장수술을 하는 개인별 맞춤 백내장 수술이 유행이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한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빛과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개인별 맞춤 가능한 다양한 수정체가 개발되어 내 눈에 맞는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므로 개개인별, 하는 일, 직장, 취미 등 여러 환경과 가장 적합한 수술을 선택할 수 있어 개개인별 맞춤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백내장 수술의 3가지 종류

인공수정체의 종류는 크게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그리고 난시를 위한 인공수정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주로 원거리에 초점을 두는 단초점 수술방법으로 수술 후 근거리 작업 즉 독서등 작은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 착용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단초점 수정체 백내장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 돋보기 착용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은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돋보기 필요 없는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난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 난시를 위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된다면 그동안 난시로 인해 불편했던 난시 안경으로부터 해방되고 동시에 선명한 시력회복으로 백내장 제거가 가능하게 되었다. 백내장 수술시 한번 삽입되는 인공수정체는 한번 넣으면 다시 제거하고 새로 수술하기 어려운 만큼 한번 수술시 신중한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람 네트워크 좋은사람들 성모안과의 박성진 원장은 “다년간의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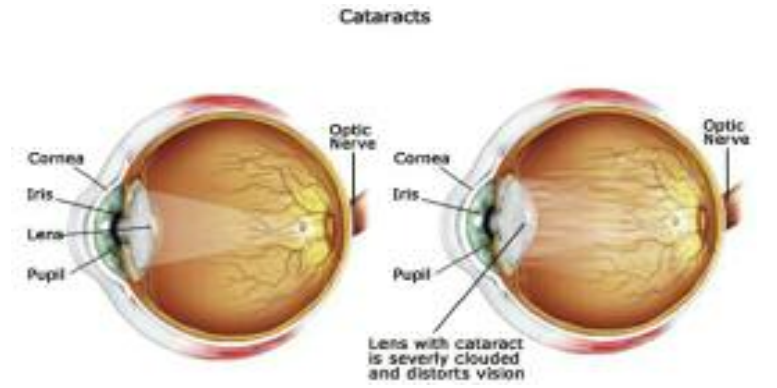
층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면서 다양한 수술경험을 통해 단초점 백내장 수술 이더라도 양안의 주시안과 비주시안의 시력차이를 두는 듯수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 전하고 있으며 백내장 수술을 준비하는 환자들과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권유해 드리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의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층 길어진 노년생활의 시력향상이 질적인 높아질 수 있게 되었으며 안경, 돋보기를 벗고 생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백내장이 찾아왔다고 이제는 늙었다고 생각하는 고루한 시대는 지나가고 젊은 20대 30대에는 라식 라섹이라는 시력교정 수술이 있다면 60대에는 맞춤 백내장수술로 그동

안 안경으로부터 불편한 삶을 던져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본다.


휴람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는 대학병원 이용보다도 백내장 수술의 다양한 환자층들을 더욱 안전하게 수술하고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도록 맞춤 백내장 수술을 위한 인공수정체 정확한 듯수계산이 가능한 첨단 검사 장비인 AL 스캔 (레이저 안구 측정기) 도입하여 더 정확한 안구길이 측정, 각막의 굽은 정도등 다양한 안구분석이 가능하며 대학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최신 녹내장, 망막질환 검사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수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으로 더욱 고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고 적극 추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b>Somerville 5 Family \$ 999,900</b> 294평 5700sq, 주거전력 3072sq, 합1911포기 501 콘도, Quaker Dining, Hard oak floor, granite counter,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광택이 있는 4차.</p>	 <p><b>Brookline 2 Family \$ 1,100,000</b> Tax: 43,410, 주거전력 2383sq, 대지전력 4812sq, 멋진 학교, 잘 관리된 공원, Green Line D 근접, 2차 90평의 위치, 풀 근접, 5 year Roof, 일대일로 heating system, 2차</p>	 <p><b>Newton 2 Family \$749,900</b> 2가구 지붕이 있는 2차 수입 약 66,000, 대지 면적 8595 sq.ft, 년Tax 36,881</p>	 <p><b>Newton \$1,200,000</b> 2가구집주, 연수입\$81,500, 대지면적4220sq.ft, 일대일로 위치, 풀이 있음, 연소득이 많은 위치(T 근접, 보스톤힐리지</p>	 <p><b>Newton \$1,999,000</b> 3019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전력 5887sq.ft, 대지면적 10990 sq.ft, 2차, 화장실 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p>
 <p><b>Newton 9999,000</b> 2017년 새집, 합 4차 화장실 3개, 멋진 학교, 보기도 좋은 가격, 주거 전력 3950sq.ft, 대지 면적 700 sq.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p>	 <p><b>Reading \$ 385,000</b> 2014년 새로운 콘도, 멋진 학교, 편리한 교통,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 합 2차, 화장실 2개, 주거전력 1300sq.ft, 30년째되는 합 2차 남향, 95 고속도로 근접, Garage Parking</p>	 <p><b>Burlington \$ 589,000</b> 2017년 새집, 합 2차, 화장실 2.5개, 주거 전력 2000sq.ft, 대지 면적 1075 sq.ft, Heart of town 근접.</p>	 <p><b>Boston Fenway \$ 364,000</b> 합 1차, 화장실 2개, 주거전력 678sq.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 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p>	 <p><b>Winchester \$1,290,000</b> 2017년 새집 최고의 학교 합 2차 화장실 4.5개, 주거전력 4000sq.ft, 대지면적 17540sq.ft, 이후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p>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 박Bang~! 미네소타의 영웅 될까?

[2016년 MLB 한국인 선수 특집 (1) - 박병호 선수]

박병호 (미네소타 트윈스 / No.52 / 1루수 / 우투우타 / 1986년, 29세)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현 시점 KBO 최고 타자

주요 기록
2년 연속 한국 프로야구 MVP (2012년, 2013년)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 (2012, 2013, 2014년)
4년 연속 홈런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년 연속 타점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년 연속 50홈런 (2014년, 2015년)
한 경기 4홈런 (2014년 9월 4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박병호는 2016년 현재 미네소타 트윈스 소속의 야구선수다. 2015년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제도)을 통해 1,285만 달러를 제시한 미네소타가 단독협상권을 따냈으며, 지난 12월 2일 4+1년 옵션 포함 총액 1,85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다. 주 포지션은 1루수이며, 성남고 - LG트윈스 - 넥센 히어로즈를 거쳐 2016년부터 미네소타에 새 등지를 틀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 12의 국가대표로 활약하였으며, 이만수 - 장종훈 - 이승엽 - 이대호를 잇는 국가대표 장타자이다. 별명은 박뱅(Bang), 브룸박 (친정팀 넥센 히어로즈의 전신인 현대 유니콘스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4번 타자 클리프

브룸바에서 유래했다.)이 있다.

### 박병호는 어떤 선수?

성남고등학교 선수 시절에는 포수를 맡았으며, 1루수로 전향한 뒤 고교 야구 최초의 4연타석 홈런을 쳤다. 청소년 대표를 거쳐 2005년에 1차 지명으로 LG 트윈스와 계약금 3억 3천만 원에 계약하였다. 그러나 최고의 거포 유망주라는 기대와 달리 첫 프로팀에서는 본인의 잠재력을 깨지 못했다. 2군 리그에서는 2군본즈(MLB 통산 홈런, 단일리그 홈런 1위를 기록한 홈런타자)라고 불릴 정도로 맹활약했지만 정작 1군에서는 1할 대의 부진한 타율을 보였다. 당시 LG의 1루수에는 최동수와 페타지니라는 3할대 1루수가 3명이나 있었고, 히어로즈에서

트레이드 된 국가대표 이택근도 가세한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의 간섭으로 자신만의 타격폼을 잃어갔고, 기대와는 달리 5년 동안 저조한 성적으로 인한 비난으로 자신감도 잃어가던 상황에서 넥센 히어로즈로의 이적은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다. 2011년 8월 넥센은 3선발 김성현과 셋업맨 송신영을 LG로 보내는 대신 타자 박병호와 선발투수 심수창을 받아왔다. 팀의 주축 선수를 1할 타자와 17연패를 기록 중인 선발투수와 바꾼 것 때문에 야구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넥센으로의 트레이드 이후 타율과 홈런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시 넥센의 코치진은 박병호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성적과는 상관없이 1군 4번 타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부담감을 떨쳐냈으며, 이듬해인 2012년, 前 KBS N 스포츠의 이지윤 아나운서와 백년가약을 맺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았다. 이에 보답하듯 박병호는 LG에서 데뷔하여 5년 동안 기록한 전체 홈런보다 많은 31개의 홈런을 쏘아 2012년 시즌 홈런 순위 1위를 기록, 리그 MVP를 수상하였다. 2012년부터 2년 연속 MVP, 3년 연속 골든글러브, 4년 연속 홈런왕 및 타점왕에 올랐고, 2014, 2015년 시즌에는 이승엽에 이어 한국 프로야구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한 박병호 선수

는 2번째로 50홈런을 기록하는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했다.

### 박병호의 전망

박병호가 이적할 미네소타 트윈스는 타겟필드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메리칸리그 중부리그 소속팀이다. 1924년, 1987년, 1991년 3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하였고, 2000년대에는 효율적인 트레이드와 신인선수들의 발굴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가운데서도 지출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인 야구를 하며 전형적인 스몰마켓팀의 모습을 보였기에, 박병호와의 계약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 미네소타의 스카우터인 김태민씨는 스포츠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박병호를 성남고 2학년 때부터 지켜봐왔다고 전했다. LG에서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넥센에서 결국 꽃을 피운 것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미네소타의 테리 라이언 단장도 미국 팬그래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박병호는 고난을 이겨낸 선수라고 평가한 점은, 미네소타가 박병호의 성실함과 근성을 높이 평가했음을 볼 수 있다. 미네소타가 기대하는 박병호의 홈런 능력에 있어서는 다소 하향세가 우려된다. 더 높은 수준의 상대 투수와 새로운 환경 적응뿐 아니라 투수 친화적이고 펜스 길이가 긴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박병호의 올해 홈런 비거리는 123.9m로 타겟필드의 평균 홈런 길이인 약 120m보다 긴 점, 팀 내 홈런 상위 4위가 우타자인 점, 그리고 한국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강정호(現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이번 시즌 타겟필드에서 2개의 홈런을 기록한 경험이 있는 만큼,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itshunne@bostonkorea.com

이름	포지션	2015 경기수/타석	2015 타율	2015 출루율	2015 안타/홈런	나이 / 메이저데뷔
미구엘 사노	지명	80 / 279	.269	.385	75 / 18	22 / 2015
조 마우어	1루수	158 / 592	.265	.338	157 / 10	32 / 2004
케니스 바가스	1루수	58 / 175	.240	.277	42 / 5	25 / 2014
박병호(15년 넥센)	1루수	140 / 528	.343	.436	181 / 53	28 / 2016
2016년 예상*1	1루수	613타석	.266	.333	147 / 27	29 / 2016

\*1 출처: 팬그래프닷컴 (www.fangraphs.com)

## Hammond Residential

### Real Estate

**WESTON**  
...\$ 1,650,000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kbae@HammondRE.com

**Uni Joo (주 윤희)**

508-641-8924  
ujoo@HammondRE.com

여러분의 부동산,  
어렵게 생각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AN. 15TH - JAN. 21ST, 2016

—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 Winter chillin' means GRILLIN' INSIDE!

That's how the Koreans do it. Now you can do it and save, too.

겨울에도 따뜻하게!  
 H마트와 함께  
 집안에서 바베큐!



**Indoor BBQ / 실내 바베큐**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pinterest.com/hmartusa) 

**Kimchi EVERYDAY**

**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감산 현미 15 lbs. **\$9.99** 

**NISHI MOTO Sekka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 **\$9.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박스 box **\$24.99**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Gobo** 우엉 lb. **\$1.99**

**Ginger** 생강 lb. **\$1.4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SOONYEOWON Tofu** 수녀원 콩두부 All Varieties/ 14 - 16oz.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등심 스테이크 lb. **\$9.99**

**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돼지 등갈비 lb. **\$4.99**

**Pork CT Butt Chunk** 수용용 생 돼지목살 lb. **\$4.99**

**Ox Feet** 냉동 우족 lb. **\$2.49**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lb. **\$1.4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ollock** 냉동 동태 700up lb. **\$1.99** 

**SUHYUP Pacific Squid** 수협 동해산 냉동 선홍 오징어 lb. **\$2.99** 

**Masago** 마사고 1.1 lbs./pkg. lb. **\$9.99** 

**White Bass** 화이트 베스 lb. **\$2.99** 

**Half-Shelled Mussels** 반갠 홍합 2 lbs./pkg. **\$7.99** 

**TONGTONGBAY Bok Kum Anchovy** 통통배 가족용 볶음멸치 Medium/5oz.-pkg. **\$4.99**

Scan your **E-COUPONS** ON YOUR MOBILE!

1. H마트에서 이메일 등록
2. 이메일로 E-COUPON 받기
3. 계산시 모바일에서 E-COUPON 스캔

**SMART CARD MEMBERS ONLY**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4oz. x 12ea./box **\$14.99**

**NONGSHIM Zha Wang Noodle with Roasted Jjajang Sauce** 4.7oz. x 4ea./pkg. **\$7.99**

**PULMUONE Nature is Delicious Non-Fried Ramyun Noodle** 풀무원 자연은 맛있다 생라면 Mild/Spicy/ 3.6oz. x 4ea./pkg. **\$4.99**

**KIKKOMAN Naturally Brewed Soy Sauce** 기꼬만 간장 1gal. **\$9.99**

**KTOWN Instant Bibimbap** 케이타운 즉석 비빔밥 10.86oz. **\$0.99**

**CJ Bibigo Crispy Potstickers/ Classic Dumplings** CJ 비비고 물만두/군만두 1.75 - 2 lbs. **\$7.99**

**HAITAI Honey Tong Tong Snack** 해태 허니통통 2.29oz. **\$0.99**

**WOONGJIN Green Plum Drink** 웅진 조록 매실 1.5L **\$2.99**

**E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4fl.oz. **\$5.99**

**HELLO HOME Elec. Grill** 헬로홈 전기 그릴 HELLO HOME Elec. Grill ~~\$39.99~~ KYS-868A/ea. **\$29.99**

**HELLO HOME Electric Mini Chopper** 헬로홈 미니 자퍼 HELLO HOME Electric Mini Chopper ~~\$12.99~~ XJ-7K105/ White/ 1.5Cups/ ea. **\$9.99**

**ZOJIRUSHI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조지루시 스테인리스 보온병 ZOJIRUSHI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SF-CC20XA/ 2L - ea. ~~\$44.99~~ **\$32.99**

# 패츠 플레이오프 첫 상대는 치프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AFC 2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패트리어츠는 지난 주 풀 같은 휴식 시간을 가졌다. 패트리어츠는 텍산스를 30 대 0으로 대파한 치프스와 이번 주에 경기를 갖는다.

치프스는 올해 시즌을 1승 5패로 부진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내리 10연승을 달리며 시즌 후반 NFL에서 가장 뜨거운 팀으로 변모했다. 특히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정규시즌 4주차에 치프스를 만나 14 대 41로 대패한 경험이 있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다면, 패트리어츠는 언제나 수퍼볼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수퍼볼 우승 이후 2년 연속 챔피언을 노리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2004년과 2005년 시즌에 연속으로 수퍼볼 우승을 한 경험이 있다.

스타 타이틀 엔드 탑 그롱코스키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시즌 중 무릎 부상을 당한 그롱코스키의 컨디션은 100% 장담할 수 없다.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한 패트리어츠는 시즌 초반에 비해 하락세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최고의 베테랑 쿼터백 탐 브래디가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언제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강점: 패트리어츠 최고의 강점은 쿼터백 탐 브래디 - 빌 벨리치 감독 조합이 견재하다는 것이다. 브래디와 벨리치는 지난 15년 동안 플레이오프 13회 진출, 수퍼볼 6회 진출에 4회 우승을 일궈냈다. 이 둘의 경험은 NFL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또한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여전히 NFL 탑 10 안에 든다. 패트리어츠의 수비가 치프스의 공격을 확실하게 봉쇄한다면 의외로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약점: 패트리어츠의 오픈시브 라인 은 시즌 내내 지적되어 왔던 문제다. 시즌 초반에는 선수들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매주 선수들이 바뀌었고, 중반 이후에는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층이 종이처럼 얇아졌다.

패트리어츠의 오픈시브 라인이 치프스의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경기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 오픈시브 라인이 버티지 못한다면 쿼터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픈시브 라인이 손쉽게 무너져 버리면 패스 공격도, 러닝 공격도 할 수 없게 된다.

변수: 정규 시즌 동안 부상을 당했던 주요 선수들이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



치프스와의 경기에서 최대 변수는 패트리어츠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다

했는지에 따라 패트리어츠의 경기력은 크게 달라진다. 무릎 부상 이후 눈에 띄게 활약이 줄어든 그롱코스키는 물론, 발을 다친 이후 시즌 후반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던 와이드 리시버 줄리언 에들먼의 복귀가 중요한 변수다. 에들먼은 플레이오프 출전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컨디션은 아직 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 시즌 리그에서 쿼터백 색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캔들러 존슨도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의 핵심인 단테 하이타워는 출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규 시즌 리그에서 쿼터백 색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캔들러 존슨도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의 핵심인 단테 하이타워는 출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규 시즌 리그에서 쿼터백 색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캔들러 존슨도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수비의 핵심인 단테 하이타워는 출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jsi@bostonkorea.com

## [MLB]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를 택한 세 가지 이유

강한 전력 · 투수 친화구장 · 팀 분위기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오승환(34)은 계약 직전까지 메이저리그 5개팀의 러브콜 속에서 고민했다. 그런 그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최종 행선지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오승환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오승환은 해외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고, 빅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승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스포츠 인텔리전스의 김동욱 대표는 이날 "공식 수사 발표가 나온 이후 여러 팀의 제안을 받았다. 마지막까지 5개 정도의 팀을 두고 고민한 끝에 세인트루이스로 결정했다"고 했다.

오승환이 많은 팀 중에서도 세인트루이스를 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강한 팀 전력과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 팀 분위기였다.

세인트루이스는 메이저리그에서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팀이다. 지난 시즌에도 페넌트레이스 100승(62패)으로 리그 최고 승률(0.617)을 기록했고, 올 시즌 역시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김 대표는 "세인트루이스는 매년 포스트시즌에 갈 수 있는 팀이기에 짧은 시간동안 오승환의 실력을 보

여주기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단에서도 오승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우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도 "팀 전력이 강하다는 것은 선수에게도 큰 이점이다. 같은 성적을 내더라도 노출 빈도가 많은 선수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 야디어 몰리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몰리나는 공수를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 포수로 꼽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내셔널리그 포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인정받는다.

송 위원은 "메이저리그 첫 시즌에 몰리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오승환에게 엄청난 이점이다. 몰리나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호흡을 맞추는 투수의 성향에 따라 리드를 한다. 투수의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포수"라고 극찬했다.

오승환도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기존 구종에서 다른 것을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팀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

기를 하고 의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홈구장인 부시 스타디움이 비교적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 가깝다는 것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시즌 유일하게 팀 평균자책점 2점대(2.94)를 기록한 팀이다. 투수진이 워낙 탄탄하긴 했지만 홈구장의 영향도 없지 않았다. 홈 평균자책점(2.70)이 원정(3.19)보다 월등히 낮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부시스타디움은 지난해 파크팩터(Park factor)에서 0.931을 기록했다. 파크팩터란 타격 기록에 의한 통계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데이터로, 어느 구장에서 점수가 많이 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파크팩터가 '1'이 넘으면 타자, 넘지 않으면 투수에게 더 유리하다. 0.931은 낮은 순으로 따졌을 때 공동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통적인 투수 친화구장으로 꼽히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펫코 파크가 부시 스타디움과 같은 수치였다.

홈런 파크팩터는 더 낮았다. 부시스타디움은 지난해 0.857의 홈런 파크팩터를 기록해 8번째로 낮았다. 중간계투의 경우 피홈런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문은 오승환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다.

마지막 이유는 팀 분위기였다. 세



오승환(34)이 1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입단식에서 마이크 매시니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트루이스에는 앞서 아시아 출신 선수가 거처간 사례가 많지 않았다. 지난 2002년부터 6시즌을 뛰었던 일본인 외야수 다구치 소가 거의 유일한 사례다. 오승환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였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구단 모두가 화합, 조화라고 하더라. 단장과 감독 등 구단 관계자를 모두 만나 봤는데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있었다"면서 "그런 모습이 팀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라 유추한다면 오승환이 적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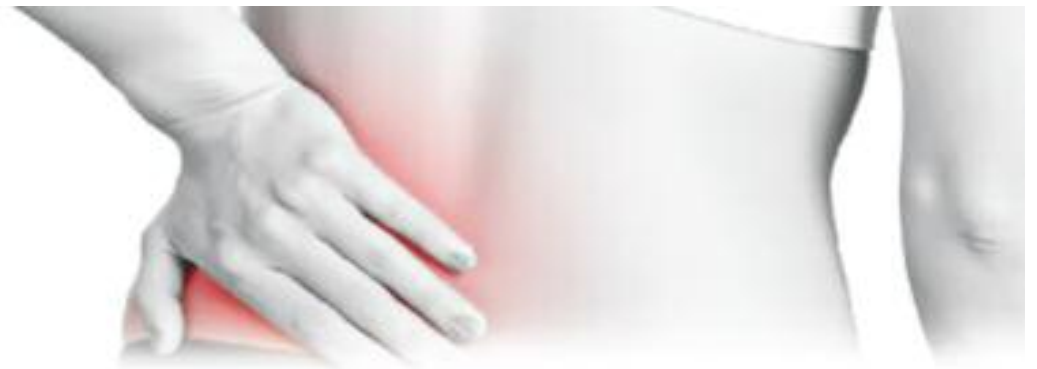
마이크 매시니 감독은 현역 시절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큰 빛을 봤던 선수다. 2000년부터 5시즌 간 팀의

주전 포수로 활약했고, 이후 코치 생활없이 팀의 감독으로 부임했다. 선수 시절부터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오승환에게 자신이 달던 등번호 26번을 흔쾌히 양보하기도 했다.

오승환도 "마이크 매시니 감독을 짧게 만났는데 이미 저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더라. 구질이나 কে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면서 "2월 20일부터 스프링캠프가 시작이지만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일찍부터 팀에 합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빅리그 입성에 성공한 오승환. 그 행선지가 세인트루이스라는 것은 오승환에게는 여러모로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starburyny@news1.kr



#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을 참지마세요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현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취급보험> 학생보험, 여행자보험, 개인보험PPO, 상해보험

**원장: 윤창**  
Dr.Chang Yoon, 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틀리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클리닉 원장  
네지니아 침구병원 원장  
보스턴 노스어스틴 물리치료학 박사

**Dr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LEE CHIROPRACTIC

부륙라인 척추신경 센터

# “척추를 바로 잡자!”

**원장: 이은혜**  
Dr.Eunheey Lee, DC

저희는 척추신경 전문병원으로,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기쁨의 웃음을 선물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와 철학이며, 환자가 어린 분들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교정 <취급보험> 학생보험, 여행자보험, 교통사고 보험, 일반보험PPO

부륙라인 척추신경 센터 LEE CHIROPRACTIC

www.DrLeeChiro9.COM TEL: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 박 대통령 "위기의 대한민국, 정쟁 내려놓고 힘 합해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일 위안부 합의 왜곡 바람직하지 않아"  
 핵무장론·외교안보 문책론 일축, 기간제법 뺀 노동개혁법 수정제안  
 '위기' 강조하며 쟁점법안 국회처리 호소,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한 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에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해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선거구도 확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 제4차 핵실험 대응조치와 관련해 "핵실험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대해 "북한을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 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면서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국이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남한의 핵무장론이 재부상하는 데 대해 "핵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해왔다"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북핵 위기로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론이 다시 높아지는 데 대해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결과"라면서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을 겪어내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며 "합의 내용이 완벽하거나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손조차 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5법에 대해선 여야 노동계 간 이견이 큰 2개 법안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과건법은 처리해 줄 것을 수정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과건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

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직권상정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판단을 내려주시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새해 '보육대란' 논란을 빚고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교육청들에 대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

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들을 불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5번째이자, 기자회견으로는 3번째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선 담화에서 국민 38번, 경제 34번, 일자리 22번, 개혁 21번, 북한 19번을 언급하면서 북핵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홍렬 경호실장, 청와대 전(全) 수석비서관, 내신 기자 100명, 외신 기자 4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짜진 각본대로...

(서울=스마트 미디어) 김민준 기자 = 보통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손을 드는 장면이 연출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순서와 주제를 정해놓고 사전에 미리 기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흘러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질문은 서울신문, KBS, 조선일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경상일보, OBS, 뉴데일리, JTBC, 한국일보, 평화방송,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대전일보 순이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의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이미 모든 질문 내용이 담긴 질문지가 유출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북핵 관련, 세 번째 질문은 위안부 합의 및 소년상 문제, 네 번째는 거시경제, 법안지연 문제, 진박가박 논란, 국회심판론,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야당 관련, 외교-안보라인 문책론, 위안부 문제,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의 순입니다.

mjkim@smartmedian.com

## 국민 38회 언급한 박 대통령... "머리 좋아 기억" 농담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취임 이래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에서는 '안보와 경제 위기 비상 상황'을 내세운 절박감이 강조됐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으나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농담도 하는 등 여유를 찾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9분까지 약 1시간39분 동안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담화는 약 30분간 진행됐고 나머지 시간 동안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정례적인 신년 회견 대신 국가 위기 국면을 맞아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앞세운 만큼 박 대통령은 이른바 '경제 활성화 북'으로 불리는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은 채 메시지 전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엄중한 시국 속 국민의 단합과 협조를 강조했던 만큼 담화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단어는 '국민'(38회)이었다. '위기'(15회)도 여러차례 강조됐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19회)과 '핵실험'(10회)은 자주 등장했지만 '통일'이란 단어는 단 한차례

도 언급되지 않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지막 해를 맞은 올해 4대 개혁 완수와 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의지를 신년사에서 밝혔듯 '경제'(34회)와 '일자리'(22회), '개혁'(21회)도 언급 빈도가 높았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한 키워드 중 '노동'은 16회, '노사정'은 8회씩 담화에 나왔다.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맥락에서 '국회'(17회), '통과'(13회) 역시 빈번히 언급됐으며 '법'은 수십번 단어로 활용됐다.

대통령 메시지에 쏠린 눈길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던 탓인지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초반 문장을 잘못 읽는 등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표정에도 괴근한 기운이 역력했다. 박 대통령 옆쪽에 앉은 청와대 참모진들도 굳은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를 지켜봤다.

긴장 탓인지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쟁점 법안 통과 불발 시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던 중 '개인의 정치'를 정반대 의미인 '국민의 정치를'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답변 과정에서 웃

거나 농담을 하는 등 여유를 찾은 듯 보였다.

박 대통령은 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웃으며 "(질문들에 관한) 답을 다 드렸다.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 하셔서 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가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 한다"라고 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선 "국회의장께서도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지 않겠나"라고 하기 전 한숨을 내쉬어 현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평가를 묻는 예민한 질문도 "국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왜 (반 총장에게) 찬성하시냐고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정확할 거 같다"고 재치있게 넘겼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홍렬 경호실장, 청와대 전(全) 수석비서관, 내신 기자 100명, 외신 기자 4명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girin@news1.kr



#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방, 탄력, 밝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도매  
**홍은희**

# 여. 총선 경선 체제 돌입...탈도 많던 공천률 확정

상임전국위 열고 당헌당규 개정...3월에 중앙선대위 발족

(서울=뉴스1) 박상희, 차윤주 기자 =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 상향식 공천을 뼈대로 하는 내용의 20대 총선 공천제도안을 확정했다.

공천제도가 최종 의결된 만큼 새누리당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지역구 후보자 공고 및 공모, 공천심사 기준 마련, 경선 방식 확정 등을 논의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 곧바로 경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의 국민 대 당원 비율을 5대 5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경선에서 1, 2위 간 격차가 10%포인트(p) 이내 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천제도를 의결했었다.

다만, 일부 사항이 당규 개정사안이라 새누리당은 당무 심의·의결기관인 상임전국위를 개최하고 이날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최고위에

서 의결된 공천제도가 그대로 통과됐다. 의결된 공천제도에는 여성과 장애인, 정치 신인에 10%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내용과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등은 정치 신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의 감점을 부여하고 불성실한 현역 의원에게는 감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천관리위가 경선 관련 결정을 할 때 후보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원선거인단 현장투표는 전화조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유권자수에 비례해 당원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상임전국위 참석자는 "일부 표현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뿐 이견은 없었다"며 "최고위에서 통과된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당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새누리당은 총선과 관련해 다음달 28일까지 20대 총선의 지역구 후보 경선을 완료하고 3월에는 중앙선대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미 발족한 총

선공약개발단과 총선거획단은 협업하게 된다. 3월 중앙선대위가 구성되면 종합상황실에서 총선거획단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클린공천지원단을

구성해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천을 진행할 것"이라며 "3월 중앙선대위가 발족하면 부정선거감시단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chacha@news1.kr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여 '룰의 전쟁', '김무성 대 친박' 승자는?

김무성, '당원30:국민70' 상향식 공천 관철...오픈프라이머리 후퇴에 안도  
친박, 청와대 출신 인사 정치신인 가점 받아 '친박'에 힘 실어줘  
현역, 잠재적 경쟁자 모두 '마이너스' 점수 받아야...현역 평가에는 '울상' 신인, 가산점 받지만 경선 치러야

(서울=뉴스1) 서상현, 김영신 기자 = 20대 총선에 적용할 새누리당 공천률이 대략 정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득실 분석이 한창이다.

하지만 공천률 확정이 '룰의 전쟁'의 끝이 아님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향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가 세부적인 사안을 결정하더라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 김무성, '당원30:국민70' 얻은 '상처 큰 영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중앙여성위원회 신년인사회에서 "오로지 공천의 힘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갔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냐"고 축하했다. "새누리당 공천은 새누리당도, 저도, 사무총장도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다.

김 대표로선 당헌·당규상의 당원(50)과 일반국민여론조사(50) 반영비율을 '30:70'으로 고쳐 '상향식 공천' 취지를 반영했다는 것이 득(得)이라면 득이다.

또 당 공천관리위가 어떤 지역구의 경선방법을 30:70으로 결정했더라도 최고위 의결을 통해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도 김 대표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이다.

100% 여론조사경선은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플랜B였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안심번호를 활용한 100% 휴대전화 여론조사 경선→현행 당헌당규에서부터 원점 재검토'라는 공천률 후퇴 과정을 거친 김 대표로선 상처뿐인 영광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관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최고위원회의의 계과 구성이 친박계가 우위여서 100% 여론조사 경선 지역 선정과정에서 친박계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

◇ '靑 출신은 정치신인' 만든 친박계

현 정부 출신 중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신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나 공공기관 출신들은 모두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박계도 인지도가 높은 고위직 인사가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고무된 모습이다.

친박계 한 의원은 뉴스1과 만나 "사실상 청와대 △△△은 인지도로 보면 현역 이상급"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여권의 주류지만 수적으로 열

세였던 친박계는 어떻게든 새로운 친박계 인사들을 수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원하는 이유다.

그래서 경선 1, 2위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하라면 결선투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친박계로선 득이 되는 셈이다. 비박계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며 결선투표 경우의 수를 줄이려고 애썼다.

반면 당원과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는 현행 당헌당규는 고수하지 못했다.

◇ 현역 의원, 잠재적 대항마 도전에 빗장 걸어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감산을 끌어낸 게 소득이라 볼 수 있다.

현역으로선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지도를 쌓은 도전자들이 힘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위 의결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20%의 감점이 이뤄진다. 광역·기초의원은 감산 10%다.

특히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재선 이상 광역의원 등에 이어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지방의회 의장 출신을 정치신인에서 추가로 제외했다.

하지만 현역은 경선 과정에서 10%포인트 이상 벌려놓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본인이 1,2위가 되더라도 탈락자들의 합중연령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최고위는 불성실 현역 의원을 평가해 이른바 '컷오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최종 경선에는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 가산점 획득한 정치신인...본선경쟁력은

의문  
새누리당 후보로 처음 등록하는 도전자는 신인 가산점 10%를 받는다.

이중 청년(만 40세 미만)·여성·장애인 신인은 가산점을 20%까지 받을 수 있다. 전·현직 여성 의원들은 모두 10% 가산점을 받는다.

만약 현역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43%의 지지율로 1위가 되고, 정치신인이 40%로 2위가 됐다고 가정하면 10% 가산점을 받는 정치신인이 44%로 후보가 된다. 청년·여성·장애인 신인이면 48%가 돼 역전도 가뿐하다.

또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는 여성을 현재 50%에서 60%로 추천을 늘리기로 했다. 비례대표 출수번호는 여성, 짝수번호는 남성이었다는데 이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는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한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1~4급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 모두 10% 가점을 받는다.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독립·참전·국가 유공자는 15%의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고조될 뇌관은 아직 남아 있다.

사실상 전략공천 소지가 있는 우선추천지역을 전국 어디든 다 적용할지, 새누리당 강세지역에는 예외를 들지는 생각이 다르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도입할지도 논의 중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제도는 당규 개정사항이라 오는 14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dearpure@news1.kr




# 서울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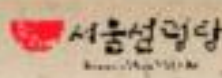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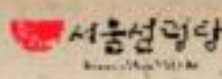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따뜻한  
곰탕,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17.875.8888  
SeoulFoodBazaar\_bar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피와 적외선 손상에 지친 머리를  
복구시켜 드립니다

###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1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피마 70분 부터  
다자컷 130분 부터/계곡핀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영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팀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uuvy 운영

#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 HAPPY

##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향 전통사자직,  
소중함 내 아가씨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풍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가지귀 케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총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이요 권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대/유지/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C.영양상담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향  
7 Clemen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Broker/Owner of RE/MAX

www.ganai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75, (978) 944-3404  
www.bostonumc.org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데스크 US 월드 링컨 프로  
sj.usgw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리에 따라 언제든 말씀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사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양교실 주일오후 12:30  
속죄교실 수-주일 속죄일  
유대교실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지사부터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 Efit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ader를 통해 미국 16개주에 있는  
7000여개의 구역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UMS 서비스자 상담팀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 National Grid와 비교해서  
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너주네스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ader를 통해 미국 16개주에 있는  
7000여개의 구역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이선호 지사장 / energy@slp-seon.com



독자기고  
김철

##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0. 와시타강 대학살 (2)

비처 섬(Beecher Island) 전투 (계속)  
사이엔 전사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매부리코의 사망과 관련한 하나의 슬픈 일화가 있다. 매부리코가 착용하는 독수리 깃털로 장식된 전투모(bonnet)에는 특별한 마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 전투모를 쓰고 있는 한 백인의 총알이 매부리코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마력이다. 실제로 그 전투모 덕분에 인지는 몰라도 매부리코가 수많은 전투에서 언제나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였으나 여태까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마력은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금속과 접촉하게 되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잔치 집에 초대되어 음식물을 대접받았는데 그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 쇠붙이 조리도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매부리코는 마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디언식 정화 의식에 들어갔다. 이 때 마침 비처 섬 전투가 발생하여 한시가 급해지자 정화의식을 온전히 끝내기도 전에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날 그의 언행을 보면 그 전투에서 본인이 사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한 듯하다. 그는 사이엔 부족의 추장이나 지도자로 선임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 언제나 용감무쌍한 전사로 남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람한 체격과 매부리코를 가진 그의 명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미군은 그를 사이엔족의 최고 지도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한 기록에 따르면 1860년부터 1868년까지 오리건 트레일을 따라 이주민을 가장 많

이 공격한 인디언이 바로 매부리코라고 하였다. 그는 가히 '전쟁의 신(God of War)'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매부리코의 사망으로 사이엔전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1869년 7월에 있었던 콜로라도의 서밋 스프링스(Summit Springs) 전투에서 키큰 소가 이끄는 개병대가 크게 패함에 따라 옛 고향 땅을 지키려는 꿈은 점차 사라지고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와시타강 대학살  
검은 주전자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어서 가능한 한 미군의 지시에 순응하여 더 이상 미군의 공격을 받지 않고 지정된 구역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부족 젊은이들은 추장의 충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868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다른 부족의 인디언들과 함께 아칸소강 남부의 캠프를 떠나 아칸소강을 건너 캔사스 일대에서 백인들을 공격하고는 다시 검은 주전자의 캠프로 돌아오곤 했다. 퍼시스 수색대만으로는 적대적 인디언을 색출해서 처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세리든 장군은 검은 주전자의 주거마을을 적대적 인디언들의 본거지로 간주하여 이를 제거해 버릴 계획을 수립하였다.  
훗날 크레이지 호스와의 리틀 빅혼 강 전투에서 전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제7기병대장인 커스터 장군이 와시타 강가에 있던 검은 주전자의 인디언 캠프 공격을 주도했

다. 시빙턴이 샌드크리크를 공격할 때도 그랬듯이 카스터도 11월 27일 겨울 새벽시간을 택해 일제 공격을 퍼부었다. 전투에 참가한 미군은 500명이상이었으며 검은 주전자의 마을에는 약 150명의 전사를 포함하여 총 250명가량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미군측에서는 21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인디언측의 사망자 숫자는 확실하지 않다. 자료에 따라 최소 13명에서 150명까지를 사망자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전사들 말고도 여자와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미군은 여자와 어린이 53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전투 이튿날 카스터는 정확히 세어보니 103명의 전사가 사망하였다고 상부로 보고하였다. 결코 세어보지도 않고 추측으로 멋대로 만들어 낸 가공의 숫자라는 게 뒤에 밝혀졌다. 그해 12월 전투현장을 다시 방문한 카스터는 한술 더 떠서 전사의 사망자 숫자가 140명이나 된다는 기록을 남겼다. 카스터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짐작해 보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하다.  
카스터는 포로로 잡은 사이엔 여자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여자 한 사람을 징발해 갔다. 이 여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 여자에 대하여 추적해 보니 놀랍게도 그는 사이엔족의 작은 주장중 한명인 Little Rock의 딸인 당시 17세의 Mo-nah-se-tah(Spring Grass를 뜻하는 사이엔어)이었다고 한다. Little

Rock은 사이엔의 작은 주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검은 주전자의 캠프에 머물고 있었는데 와시타 전투에서 사망하고 그의 딸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다. 1876년에 있었던 리틀 빅혼 전투에 참가하였던 오글라라지파의 Joseph White Cow Bull 노인은 1938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이미 Elizabeth Bacon Custer 부인과 결혼한 상태인 카스터의 성노리개로 잡혀와 1869년에는 카스터의 아들까지 낳았는데 뒤에 카스터의 부인이 알게 되어 쫓겨난 후 라코타족의 주거지역인 와이오밍으로 옮겨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스터는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시절 앓았던 임질로 인하여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버지는 카스터와 함께 같은 기병대에 근무하던 카스터의 동생인 Thomas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스터의 제7기병대에 의한 검은 주전자의 사이엔 마을 공격)

(다음 호에 계속)

# 크라우저 앤 서 로펌

##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파도나**  
변호사

**Yael Wu**  
공익연수생

**박계영**  
사무원

###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생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판

VISIT US AT :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http://www.suhlawyer.com)

##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mailto:info@stevesuh.com)

# '기간제법' 뺀 노동4법...교착상태 '노동개혁' 돌파구 여나

박 대통령 기간제법 중장기 검토 제안...입법 완수 위한 양보 야당 '파견법' 수용 여부가 관건...제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세종=뉴스1) 한중수 기자 =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대신 파견법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노동개혁 입법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으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법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고, 파견법은 고령자·고소득전문직 파견허용 확대를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늘리는 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통상임금법위 확대 및 근로시간단축 등을 다룬 근로기준법과 출퇴근시간 산재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상법, 실업급여 인상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은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견이 없다.

야당은 현재 기간·파견법을 배제한 분리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노동계·야당이 반대하는 2개 법안 중 하나는 양보할 테니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야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이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월가월부하는 것이 자칫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합의되지 않는 비정규직법을 이제라도 폐기하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 제안에 대해선 찬반 입장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논란은 작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의한 '9·15 노사정 대타협'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누리당은 9·15합의문 결의 다음 날인 9월16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노사미합의 내용까지 포함됐다.

그러자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비정규직 2법(기간제법·파견법)은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발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비정규직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1인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간·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간제법이 개정되면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 역시 뿌리산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남용되는

불법파견을 더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2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회 논의의 공전을 거듭했다. 19대 국회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동개혁 법안이 아예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로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5대 법안 입법에 진전이 없으니 양보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며 "그러나 다툼이 있는 2대 법안 모두 양보한 것이 아닌 다소 정치적인 양보여서 야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예측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착상태 빠진 입법 상황 속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기간제법은 고용안정에 중점을, 파견법은 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둔 것이어서 파견법을 우선순위로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에 대해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 확산에 불과하다며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원활한 국회 논의를 이어갈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남은 노동4법 입법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jepoo@news1.kr



지난해 9월16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더민주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정부·여당 이야기"

"이미 예견된 일...노동약법 신중히 검토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해 "정부·여당이 결국 합의 파기를 야기했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이 어제(11일) 9·15 노사정합의의 전면파탄을 선언했다"며 "노사정기구의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기만한 정부·여당의 무도한 행태가 결국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사정합의 직후인 9월16일, 정부는 바로 전날의 노사정합의가 무색하게 재계의 입장만 반영한 노동5법을 들이밀었고 새누리당은 이를 당론으로 입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원래 합의문에도 없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었

으며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침 초안을 공개해 한국노총과 전체 노동계의 반발을 행정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박까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태로 볼 때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 노동개혁에 불과한 노동약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보인 일방통행식의 노동개혁 강행을 비판하며 대타협 파탄 선언을 했다.

parksj@news1.com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부터 노동개혁 입법 전쟁...환노위 '노동5법' 상정

여 "경제활성화" 야 "독소조항...심사일정 유예해달라" 격돌 불가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여야의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이들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때에 이같은 법안은 '노동개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늘리는 내용의 파견근로법과 35세 이상 근로자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기간제법의 경우 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파견법에 대해선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은 이는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대거 양산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으로 해석, 이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행정지침으로 규정한 휴일근로 16시간을 뺀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국면으로 법안마다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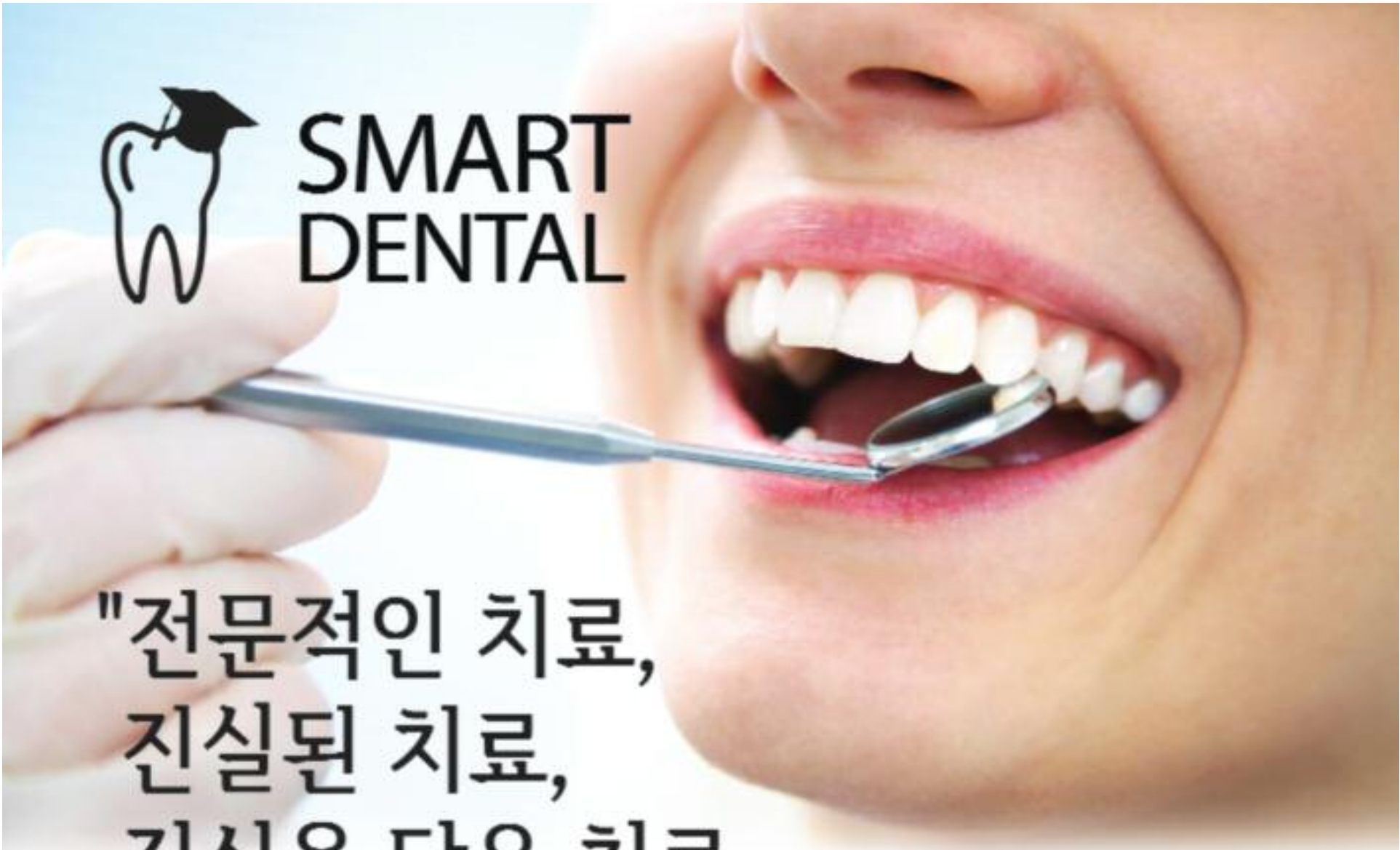
한편, 여야 잠정합의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된다면 이들 법안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 심사과정을 밟는다.

다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전날(15일) "일단 며칠간 유예 요청을 하려고 한다"며 당 차원 검토가 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smith@news1.com



#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48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840 sf.  
많이 업데이트 된 집  
Cul-de-sac, 좋은 로케이션  
이현주 401-935-3397



\$595,0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호수가 있음,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콘도 Condo 단독주택 Single Family**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6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800,000  
**Lexington, MA**  
5 beds, 4.5baths, 3890 sf.  
Custom built in 1991  
Modern house 5000sf.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5,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s,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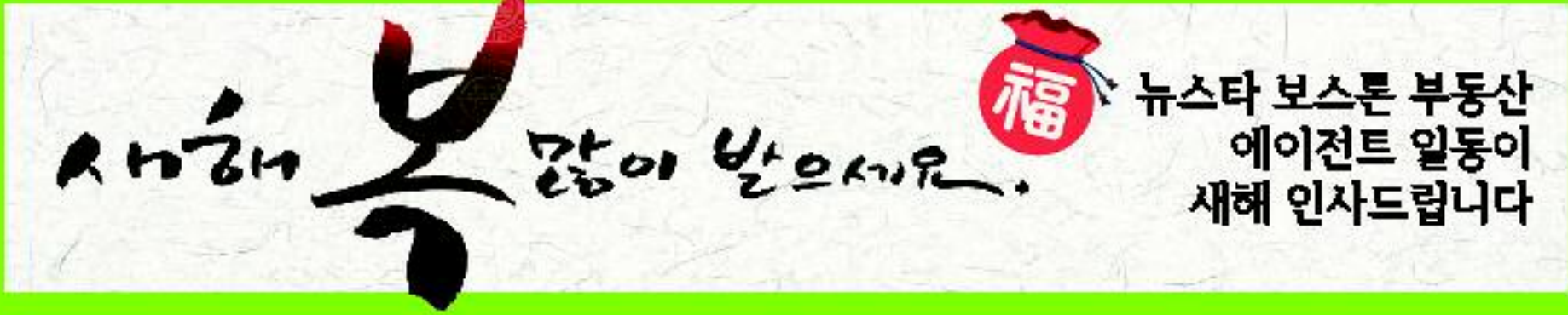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b>Restaurant</b>  \$500,0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q.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25,000 <b>Boston, MA</b>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b>Restaurant</b>  \$915,000 <b>Providence, RI</b>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Lee) 401-935-3397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sq.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I Park 617-304-7001	<b>Commerd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I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럴 sq., 하버드 sq 졸스톤, 뉴튼 센터</b> SI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198,000 <b>Cambridge, MA</b> 하버드 스퀘어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방문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you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Drycleaner</b>  \$475,000 <b>Quincy, MA</b> 100개월된 새 장비 매출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Lee) 401-935-3397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0	<b>Restaurant</b> \$290,000 <b>Somerville, MA</b> Famous Restaurant, As-is SI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440,000 <b>Boston, MA</b> Well-Established, As-is SI Park 617-304-7001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490,000 <b>Boston, MA</b>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I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60,000 <b>Chelmsford, MA</b>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30,000 <b>Cambridge, MA</b>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갯수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56-0409



#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

착수정기 수요집회 24년 만에 처음..정대협 "경찰과 상의해 집회 신고"

(서울=CBS노컷뉴스) 조혜령, 박지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협상을 최상의 합의라고 자평하며 일본의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수십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수사 선상에 놓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이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정대협 수사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이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대협은 종로경찰서에 매주 수요 집회 신고를 하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정대협 측과 협의해 신고를 받아왔다.

경찰이 24년만에 처음으로 정대협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건 워싱턴의 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준법 시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

며 "과거 저항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준법 시위를 강조했다.

반면 수요 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는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며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ooderigirl@cbs.co.kr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 미국 워싱턴서 '일본군 위안부' 놓고 한·미·일 학자 격돌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조선인 협력자들 역할 공개 논의 주장

더든·이성윤 "국가가 후원한 시스템적 착취...개인적 차원과 달리" 조지워싱턴대 교수 "아베 총리, 위안부 피해자들 직접 만나 사과하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본 측의 후원으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미나에서 한·미·일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격돌했다.

특히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조선인) 협력자들의 역할도 논의해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펴자, 일본의 과거사 외곽에 반대하는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적 차원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센터는 이날 오전 한·일 관계 전문가인 한·미·일 3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이번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한·일 학계의 상반된 시각이 공개로 표출된 자리였다.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배제됐거나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소녀 성노예로 인식되고 있지만, 1965년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 대부분 성인 여성이었으며, 내가 직접 만난 한 위안부 할머니는 '강제연행

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고 '위안부는 군인들을 돌보는 존재'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처럼 들리지 않았던 얘기를 다루기 위해 한·일 또는 한·미·일 3국 간의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해당사자들과 학계는 물론이고 언론까지 참여해 밀실 논의가 아니라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물리적 강제연행 과정에서 군 관여 문제, 자유를 구속한 주제, 위안소의 성격을 비롯해 업자의 역할도 논의해야 한다"며 "군인과 위안부 사이에는 업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일본 정부의 협력자였다"고 주장했다. 일제 시대 당시 일부 조선인이 일본의 협력자로서 위안부 동원 과정에 관여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국가가 나쁜 정책을 만들 수 있지만, 협력자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다"며 "이들 업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책임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후원한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 일본 와세다대 정치학과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제국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원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교수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양국 내부에 존재하는 단순한 민족주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대사관에 문화와 역사교류를 담당하는 비정부 인사를 뒤 양국 간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는 세계 역사학자들의 집단성명을 주도해온 더든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조율을 거쳐 정부 관리 또는 사실상 관리의 권한을 갖춘 자들에 의해 자행된 국가후원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더든 교수는 "이것은 일회적이거나 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정부로부터 위안소를 세우고, 여성들을 국경을 넘어 조달하며, 군함 또는 트럭으로 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며 가격체계와 의료절차에 대한 지침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든 교수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역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래처스쿨 교수는 "이번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후원한 군대 성노예 제도, 즉 인권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일본 내에는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나 문서가 없다는 주장 속에서 역사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돼 있다"며 "한국이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 숫자가 과장됐거나 한국 내부에 협력자가 있었고 일본 군인과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는 서로 인간적인 우호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주요 담론을 형성하고 한·일 관계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의 식민지 체제는 여러 방면에서 독특하게 탄압적이었고 독특하게 잔인했으며, 지금 북한의 김씨 일가가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일제에서 배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 회장을 맡은 이정실 조지워싱턴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비롯해 미국 워싱턴 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활동하는 한인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박 교수를 상대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던졌다.

이들 인사는 "도대체 위안부 피해여성 몇 명과 인터뷰를 해봤느냐", "예외적인 개인적 상황을 전제적으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더든 교수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협상과정에서 배제한 것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든 교수는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이 과거 전쟁범죄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제거하려고 한다"며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오로지 희생자들만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마이크 모치츠키 미국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한국으로 가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일본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고 참회해야 한다"며 "위험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고 화해의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치츠키 교수는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추진하는 '나비기금'(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적 기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이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주장하는 아베 총리의 프로그램과 일치한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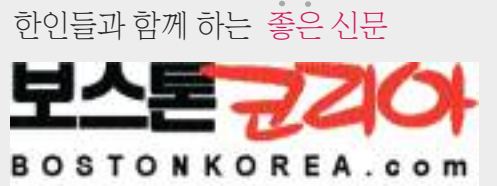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rhd@yna.co.kr



왼쪽부터 박유하 세종대 교수,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 이성윤 터프츠대 플래처스쿨 교수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회(네)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총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지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우살렐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2362
에이치 앤 앨버교회	978-274-3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골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중앙골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e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뉴스	617-871-1482
퀵시온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뉴스타부동산 렉싱턴 사무실에서 Receptionist 로 일할 분을 구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본인 이력서를 이메일(jy.p617@hotmail.com)로 보내주세요.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은퇴관계로 일식 레스토랑 싼 가격에 매매합니다.  
T. 978-494-2712

**N[구인]**  
미디어 분야에 일할분을 찾습니다  
경험자 환영합니다  
T. 706-988-8041

**N[셀폰가게 매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수 있는 비지니스,자리잡은 가게 알라바마 지역의 몽고메리  
T. 334-819-4206, 334-201-4707

한인식당에서 웨이츄레스/웨이터 풀타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424-2872 (청기와)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N[구인]**  
헤어디자이너 구함  
T. 470-299-6195

**N[매매]**  
10년된윙가게  
월매상 \$42,000, 렌트 월 \$1,250  
창고에서 50분 거리  
웨스트조지아에 있음  
매매가 \$260,000  
T. 678-387-743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2 bedrooms 아파트먼트 렌트, 크랜스턴 로드 아일랜드  
T. 401-943-7178, 401-383-7311

**N[구인]**  
조지아에서 1시간 30분 거리 외곽지역 한식주방보조 및 헬퍼구함. 숙식제공  
T. 478-293-2311

**N[매매]**  
Warner Robins 공군부대앞 미용실 매매 합니다  
T. 478-213-3089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N[구인]**  
경력스시셰프 1명,  
초보자 스시 셰프 1명  
차타누가 테네시 지역  
T. 423-316-1535

**N[투자자 및 동업자 모집]**  
새롭게 시설을 개축하여  
성업중인 식품점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정육 및 생선부를 함께 운영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T. 256-683-0333 (Ask Mr. Shin)

**휴람계류 이벤트**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20년째 KCC가게 발매하는  
저렴하고 최고 품질수준에 **대한민국 2년상업권**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서울 의료비도 부담! 절전 프로그램  
신앙이신여도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서울메디케어	4,400,000	4,700,000	4,900,000	5,000,000
대한메디케어	1,800,000	0	1,900,000	1,900,000
미국메디케어	1,200,000	2,280,000	2,700,000	2,900,000

**루트모발 이식센터**  
유용, 자유, 이점

10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수많은 모발이식 전문수술실

공급/재료, 해외물품, 20년째 20년째 20년째  
수술수, 비영리, 20년째 20년째  
수술실을 보아주세요! 20년째 20년째

질병	환자	비율	비용	보통이식	비율
탈모	100%	100%	100%	100%	100%
탈모	100%	100%	100%	100%	100%
탈모	100%	100%	100%	100%	100%

**새미치과 특별할인**  
30년 6664 2년 6664 0.01%

새미치과 특별할인

치과	120원
치과	60원
치과	20원

20년째 20년째 20년째  
인원으로 사생활에  
20년째 20년째 20년째

**메디고 특별할인**  
12000원 12000원

메디고 특별할인

메디고	15원
메디고	16원
메디고	20원

20년째 20년째 20년째  
20년째 20년째 20년째



## '로봇, 소리' 국산 SF의 따뜻한 위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로봇은 분명 흥미로운 소재이지만 한국 영화에서 선풍적인 인기로 떠오른 소재이기도 하다. SF(공상과학)가 할리우드에서 큰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로 궁극적인 지점을 달성한 장르인 만큼, 눈높이가 높아진 국내 관객들을 만족시키기란 여간 쉽지 않기 때문. 이에 한국 영화는 드라마라는 강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SF 장르의 규모를 상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한국 영화만의 SF 장르 변주를 꾀했다.

영화 '로봇, 소리'(감독 이호재)는 한국형 SF라는 수식어가 걸맞은 감동적인 작품이다. 부성에 코드와 인간, 로봇의 우정이라는 드라마가 SF에 어우러졌다. 여기에 로봇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 역시 함께 그려지며 보다 풍성한 스토리가 완성됐다.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열연이 SF 장르를 보다 친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로봇 소리'는 1990년 어느 날 해관(이성민 분)과 어린 딸 유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 어느 누구보다 다정다감했던 이들 부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 관계로 치환된다. 이후 해관은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해매는 아버지가 됐고 차

마 사망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가슴 아파한다. 그러던 중 해관 앞에 모든 소리를 듣는 인공지능 로봇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관은 로봇이 기억하는 유주 목소리를 따라 여정을 떠난다.

영화의 강점은 SF 장르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된 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실제 아픈 기억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우리 기억 속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이야기 덕분에 세상 모든 소리를 감청한다는, 인공지능을 지닌 위성 로봇이라는 캐릭터 설정 역시 무리 없이 녹아든다. 영화가 주는 정서가 논리를 뛰어넘은 틈을 보완하는 덕에 비약을 의식하지 않고 감상이 가능하다.

이성민의 열연은 휴먼 장르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한다. '로봇, 소리'가 휴먼 장르에 분류되지만 최루성 대사와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눈물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이를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이성민의 연기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딸이 사라진 후 흐른 세월에 비례한, 죄책감과 후회가 온전히 체화된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인다.

오는 21일 개봉.

aluem\_chang@news1.kr



## 이광수, 美 자동차 광고 모델.'세계로 나가는 배우'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이광수가 세계로 뻗어나가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토요타는 미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광수가 등장하는 신형 라브4 하이브리드(RAV4 Hybrid)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이광수는 푸른빛의 신형 라브4 하이브리드에 탑승해 거친 땅 위에서 운전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진흙 속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에 참가해 달린다.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번 광고 영상은 젊고 액티브한 이미지의 이광수와 잘 어울린다.

이에 토요타 미국 법인은 이광수를 토요타의 주력 시장인 미국 광고 모델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 이광수를 앞세워 미국 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광수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디어 마이 프렌즈' 등에 출연할 예정이다.

uu84@news1.kr

## '무림학교', 시간 훔치는 드라마 탄생 '화제성 甲'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무림학교'가 중독성 강한 이야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KBS2 새 월화드라마 '무림학교' (극본 양진아/연출 이소연) 측은 14일 방송 2회 만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 세 가지를 공개했다.

### 본 적 없는 캐릭터와 스토리 라인

원인 불명의 청력 이상을 호소하는 아이돌 윤시우(이현우 분)와 사막에서 모래도 팔 수 있을 것 같은 억척 소녀 가장 심순덕(서예지 분), 그리고 중국 최대 그룹의 후계자인 왕치양(이홍민 분)과 시우 앞에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에이스 황선아(정유진 분)는 여태껏 보지 못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참선과 요리, 무술 수업 등 특별한 인생 교육은 기존 청춘 성장물과 명확한 차별을 둔 스토리 라인을 도드라지게 하며 자꾸만 뒷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 곳곳에 숨어있는 미스터리 요소

'무림학교'는 청춘드라마라는 외투 안

에 숨겨 놓은 미스터리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풀어냈다. 그저 까칠한 아이돌인 줄 알았던 시우는 과거 불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명 현상 역시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했다. 채운(신성우 분)을 주시하며 미스터리함을 더한 치양의 아버지 왕하오(이범수 분)는 금과 속의 의문의 물건을 보관, 예측 불가한 전개를 선보였다.

###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청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신비의 무림학교에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청춘들이 있다. 일찌감치 사회의 때가 묻은 탓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우와 아르바이트로 하루가 바쁜 순덕은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반면 새 친구를 탐색하고 사소한 것으로도 다투는 청춘들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풋풋한 20대를 회상케 하며 에너지를 선사했다.

특히 제작진은 극이 진행될수록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청춘들의 현실이 등장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poolchoya@news1.kr



## '한밤의 TV연예' 연예인 스폰서 논란의 진실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한밤의 TV연예'가 연예인 스폰서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13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타히티 지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연예인 스폰서 논란에 대해 전한다.

지난 11일 걸그룹 타히티의 멤버 지수가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다. 지수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이런 다이렉트(메시지) 광고 정말 불쾌하다. 기분이 안 좋다"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을 스폰서 브로커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수에게 "혹시 고

급 페이지 알바 틈틈히 일하실 생각 있으세요?",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모임의 손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니 연락주세요"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비밀이 보장되며 한 타임 당 200~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논란이 가열됐다. 타히티 측은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밤의 TV연예' 제작진은 소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 사건을 조사했다. 잊을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연예인 스폰서 논란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다뤄질 예정이다.

star@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6년 1월 4일 ~ 2016년 1월 10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31.3%
2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30.6%
3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4.4%
4	MBC	주말드라마(엄마)	20.4%
5	KBS1	KBS9시뉴스	17.0%
6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6.2%
7	SBS	드라마스페셜(리멤버아들의전쟁)	15.6%
8	KBS2	해피선데이	14.9%
9	KBS1	전국노래자랑	14.8%
10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14.2%

###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SBS	일일드라마(마녀의성)
3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4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5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6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7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8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9	KBS1	대하드라마(장영실)
10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또 하루 (Feat. 개코) 개리
- 02 어땀을까 김나영
- 03 니가 하면 로맨스 (Feat. 다비치) 케이윌
- 04 Dream 수지, 백현
- 05 DADDY (Feat. CL of 2NE1) 싸이
- 06 유레카 (Feat. Zion.T) 지코 (ZICO)
- 07 사랑이 맞을거야 t 윤미래
- 08 OOH-AHH하게 TWICE
- 09 나팔바지 싸이
- 10 Boys And Girls (Feat. Babylon) 지코 (Z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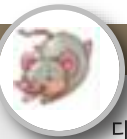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1	4			
	2			3		8		
6	8				5		9	
9	4			7		5		
		1			9			
	8		5			4	6	
1		3				7		2
	6		3				1	
		2	6					

1월 17일 - 1월 23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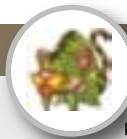
### 쥐띠 |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 운수: 기다려도 영 소식이 없었던 곳에서 소식이 옵니다. 드디어 바라던 답을 들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물만의 시간을 갖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17, 22일 주의.



### 소띠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 운수: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 큰마음을 먹고 언젠가 큰 것을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8, 19일 길일. 17,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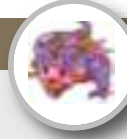
### 범띠 | 안전한 편을 택해야

● 운수: 주위에 알게 모르게 시기가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모험이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투자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 애정: 조금만 더 일찍 그만 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망설이고 시간을 끌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7, 23일 길일. 21, 22일 주의.



### 토끼띠 | 만족의 눈으로

● 운수: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한우물만 파야 귀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분산될수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 애정: 불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까지 행복해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7, 18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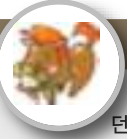
### 용띠 |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 운수: 버스는 이미 떠났으니 팔을 흔들어도 버스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괜히 들떠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9,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 뱀띠 | 행복하게 해주는

● 운수: 큰 걱정거리도 없고 주변 여건이 안정된 상태이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갈 것입니다. ● 금전: 실보다는 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때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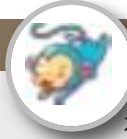
### 말띠 | 열길 물속은 알아도

● 운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평소 싫어하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 금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험은 들어도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온전한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 양띠 |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 운수: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긴장감이나 걱정으로 체력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때입니다. 그날그날에 따라 수입의 변동 폭이 클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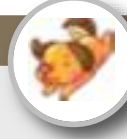
### 원숭이띠 | 변화의 물결이

● 운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잘 살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감정에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2일 주의.



### 닭띠 |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 운수: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기에 좋은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세요. ● 금전: 노력한 만큼 수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문 두문 모아둔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 개띠 |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 운수: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잘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금전: 다른 사람의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혹해서 잘못 따라가는 손해 보게 됩니다. ● 애정: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 돼지띠 |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 운수: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 금전: 회망적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배우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사랑이 영글어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3일 주의.



## '사임당' 송승헌, 예술혼 가득한 카리스마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사임당' 송승헌이 티저 포스터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SBS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극본 박은령/연출 윤상호) 측은 14일 송승헌의 캐릭터 컷이 담긴 첫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송승헌이 연기하는 이겸은 어린 시절 사임당과의 운명적 만남을 시작으로 평생 사임당만을 마음에 품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치는 남자다. 사임당과 사랑을 넘어 예술로 공명하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술혼으로 가득 찬 자유영혼의 소유자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울곧은 신념으로 절대 군주에게도 직

언을 서슴지 않는 불꽃같은 삶을 산 인물이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 속 송승헌은 눈빛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묵직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림을 그리는 광기 어린 표정은 그가 만들어낸 이겸 캐릭터와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데뷔 후 첫 정통 사극에 도전하는 송승헌은 부드러운 면모와 자유영혼 이겸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매력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전망이다. 특히 조선시대 예술인이 모여 들던 비야당의 주인이자 도화서의 수장으로 그림, 글씨, 거문고, 춤 어

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조선판 르네상스맨'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송승헌은 그 어느 때보다 캐릭터에 몰입해 촬영에 임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이겸이라는 인물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송승헌의 색다른 연기 변신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사임당'은 조선시대 사임당 신씨의 삶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천재화가 사임당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을 그린다. 100% 사전제작되며 하반기 SBS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ppbn@news1.kr



## 강호동, 생활체육부터 '국방'까지 '2016 예능 섭렵'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방송인 강호동이 기존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이끌며 2016년에도 다채로운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강호동은 오는 2월 방송되는 JTBC '셰프원정대-국가대표'(이하 국가대표)의 MC를 맡게 되며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안방극장의 문을 두드리

다. 강호동이 MC를 맡게 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셰프들이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 직접 방문해 세계 최고의 셰프들과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월 중 첫 방송 예정이다.

특히 최근 '옛날 사람', '강블리' 등

예상하지 못했던 예능 캐릭터로 반전 매력을 선사, 신선한 모습을 보여왔던 강호동이 '국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어떠한 활약을 전하게 될 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호동이 현재 KBS '우리네 예체능', SBS '스타킹', 그리고 JTBC '아는 형님', '마리와 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이끌어 오고 있기에, 새로운 분야의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2016년 새해에도 호탕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전할 것으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 '응팔' 예고편, 여전히 알 수 없는 헤리 마음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응팔' 예고편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극본 이우정/연출 신원호/이하 응팔) 측은 13일 19회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다.

'응팔' 예고편에는 최택(박보검 분)이 김정환(류준열 분)에게 과거 지갑을 열어봤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성덕선(혜리 분)과 최택이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장면도 그려졌다.

하지만 성덕선이 동료 스텐더디에게 "우리 그냥 친구다. 소꿉친구. 본지 거의 20년 다 됐다"라고 털어놓는 모습이 등장해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특히 "우리 그냥 친구잖아"라는 성덕선의 말에 상처받은 듯한 최택의 모습이 그려져 성덕선·김정환·최택 삼각관계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높였다.

한편 '응팔'은 오는 16일 20회를 끝으로 종영한다.

star@news1.kr



**천지보설**

운명사주공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QB • GDT • LMSB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포항크푸르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내부자들', 악역의 쫓득한 연기가 살린 맛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이병헌, 조승우의 카리스마가 빛나는 영화 '내부자들'이 흥행 질주 중이다.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내부자들의 의리와 배신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 하반기 총무로 최고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주인공들의 연기가 돋보인 건 사실이나, 악역들이 곳곳에 양념을 치면서 더욱 맛깔나는 영화가 탄생했다.



이 영화는 복수를 꿈꾸는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 분), 성공을 거래하는 무족보 검사 우장훈(조승우 분), 정치판을 설계하는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분)이 펼치는 범죄드라마다. 속내를 숨기고 가슴 속에 품은 칼로서료를 겨냥하는 모습이 관객들의 눈길을 붙든다.

다.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숨겨진 악랄함이 관객들의 공분을 이끌어낸다.

터에 완벽하게 몰입하며 속물의 끝을 보여준다. 얼굴이 제법 낮익은 이 배우는 '암살' 김구역, '더 테러 라이브' 경찰청장 역으로 관객들을 만난 바 있다. 이번 작품에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몰을 가리지 않는 인간으로 분해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휘감는 재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외형, 말투까지 대대적인 변신을 감행한 이병헌과 특유의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과시한 조승우는 더 이상 칭찬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내부자들'의 감칠맛나는 악역들이 존재했기에 이들의 연기에 더욱 설득력이 생긴 건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베드신에서 보여지는 그의 필땀이는 욕망은 여성 관객들을 뭉서리치게 할 만큼 징그럽다. 백윤식이 그간 쌓아온 내공이 탁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세 사람의 나체파티 신도 인상적 장면으로 꼽힌다. 오회장의 별장에서 오회장, 장필우, 이강희 등이 모여 섹스파티를 벌이는데 이때 여러 명의 여배우들과 함께 나체로 등장한다. 기이한 폭탄주 제조 장면에서는 이경영, 백윤식의 벌거벗은 뒷태가 스크린을 채우면서 이들의 문란한 사생활을 극대화시킨다.

무엇보다 백윤식, 이경영, 김홍과 이른바 '악인 3인방'의 활약이 대단하다. 뱀처럼 교활한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분)는 비상한 두뇌와 극도의 뻔뻔함으로 악의 축 역할을 한

이경영은 '내부자들'에서 유력 대권후보 장필우 역을 맡았다. 총무로서 '없어진 안 될 존재'가 된 이경영은 이번 작품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또 다른 권력에 기생하고, 비리가 폭로된 상황에서도 당당히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그의 모습에서 오염된 정치권의 악취가 짙게 풍긴다.

재벌 오회장 역을 맡은 김홍과 또한 캐릭

uu84@news1.kr

#### 티보플레이 1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SBS | 마녀의 성         |
| 3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4  | MBC | 최고의 연인        |
| 5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6  | KBS | 다 잘될거야        |
| 7  | MBC | 아름다운 당신       |
| 8  | MBC | 내일도 승리        |
| 9  | KBS | 장영실           |
| 10 | MBC | 내 딸 금사월       |

#### 티보플레이 1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2 | CJ E&M | 치즈인더트랩   |
| 3 | CJ E&M | 오디션 트릭   |

#### 티보플레이 1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내부자들       | 이병헌, 조승우 |
| 2 | 타이밍(애니메이션) | 박지윤, 엄상현 |

#### '타이밍' 강풀 작가 "10년 전, 지금보다 자유분방했다"

(서울=뉴스스타) 유수경 기자 = 타이밍은 대참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미래를 바꾸기 위해 모인 시간 능력자들의 사투를 그린 미스터리 타임 스텔러이다.

작품 중 처음으로 애니메이션화된 '타이밍'의 개봉을 앞둔 소감에 대해 강풀 작가는 "기쁘다. 요즘 애니메이션들이 3D로 나오는 상황에서 원화 느낌이 나는 작품이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스터리 썰렁 심리물 작품 중 '타이밍'만의 특징에 대해 "타이밍"을 작업했던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자유분방했던 것 같다. 생각나는 대로 그렸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풀 작가는 "타이밍" 애니메이션을 너무 기다렸다.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응원 부탁 드린다"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uu84@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 무제한 시청 월:

# \$24.99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권역별 가맹점, 최신 정보, 실시간 문의를 위한 고객센터. 3월 방송 콘텐츠 로드맵은 The Best On Demand 4, 7, 10

타이밍(애니메이션)은 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안에 있습니다. TBO TV는 전 세계로 확대 예정입니다.

The Best On Demand,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a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k**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배상 5만~7만, Asking **\$20,000**
7.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8.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9.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10.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1.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허빙,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2.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30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새해를 맞으며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길까 하며 생각해 본다. 늘 그렇듯이 신년 초에는 이런저런 계획들로 시간표를 짜놓지만, 결국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하나의 공리에 불과할 뿐이다. 머릿속의 생각은 아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힘이다. 계획이란 실천에 옮겼을 때만이 그 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이다. 물론,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삶보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신년 계획을 세우는 삶은 연말이 되었을 때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주역에 자천우지自天祐之가 있다. 그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어른들에게서 자주 들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유독 그 말씀이 귀에 오래도록 머물며 가슴에 젖어온다. 잠시, 무엇이든 자신의 노력 없이 얻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지난 토요일에 파워볼 당첨금액이 세계 사상 최고의 900 밀리언이었으니 가

히 놀랄만한 액수다. 그런데 그만 추첨에서 또 당첨자를 뽑지 못해 세계 최고의 당첨금액인 1.5 빌리언이 된다는 것이다. 밀리언도 아닌 빌리언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세어보기도 어려울 숫자놀이에 분명 그 어딘가에 누군가 주인공이 있을 터인데 하며 이왕이면 매사추세츠주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그것은 바로 확률을 제어 보아 마음에서 그 주인공이 나이면 좋겠다고 별별 공상을 다 해보는 이유이다. 아마도 모두가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 추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가 됐든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엄청난 금액의 당첨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당사자가 살면서 복을 지었든, 아니면 부모와 조상들의 은덕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큰 바람이나 운을 기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 잘 아는 지인이 로또 당첨자가 되어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늘 그런 일은 멀리에서 바라보는 정도라도 생각했던 이유이다. 그래서 그때 난생처음 내 스스로 돈을 내고 로또를 매 주 한장씩 몇 차례

사보았던 기억이 있다. 물론, 그런 행운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훌쩍 지나 '로또에 대한 허황된 꿈'은 사라졌다. 그런데 또다시 세계 최고 당첨금액의 파워볼 유혹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는 농담어린 말로 파워볼 티켓을 몇 장 샀다.

어찌 됐든, 파워볼 당첨 주인공은 나을 테니 그 많은 당첨금액으로 귀하고 좋은 일들에 많이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선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하늘은 행운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말이다. 이렇듯 소소한 일상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만나고 느끼며 오늘을 보내는 게 좋다. 무엇이든 멀리서 보면 모두가 근사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복잡하지 않던가. 바로 그것이 우리네 주어진 삶이고 그것 좋든 싫든 간에 거기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

때로는 당연한 듯한 것들로부터 잠시 생각에 머물면 그 당연함이란 것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가 없다. 나 자신이 이 세

상에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부모님을 구심점으로 형제·자매 그리고 친인척 가족의 구성원들 속에서의 나. 가끔은 우리가 너무 멀리만 바라다보고 너무 높이만 올려다보기에 내 곁의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대하고 흘러보낼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이렇듯 멀리 보던 방향을 조금만 느슨하게 놓아두고 높이 보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나를 향해 바라볼 수 있다면 적어도 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자천우지自天祐之의 사자성어는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에게 조금은 힘을 주는 말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빠른 시간에 무엇인가 해내야 직성이 풀리고 빠른 답을 얻어야 속이 풀리는 세상이 아니던가. 언제나 내가 우선이어야 하는 세상에서 나 아닌 남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고 어떤 존재로 남는 것일까. 그렇다면 남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남는 것일까. 그 누구로 인해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인생이면 좋겠다. 인생 여정에서 큰 요행보다는 작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길.



한담객설閑談客說: **면학勉學의 서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굴에서 행동에서 쉽게 읽히니 말이다. 빌게이츠도 책을 많이 읽은 티가 얼굴에 쓰여져 있는 듯 싶다. 이것도 또 사족이다. 우리 식구는 그와 같은 동네에 산 적이 있다. 그가 같은 동네에 산다고 떡을 돌린 일은 없다. 오다가다 마주친 일도 없으므로 수인사를 나누는 일도 없다. 더욱 그의 집에 초대받아 무지 크다는 그의 집 구경을 한 적도 없다. 그의 소식은 풍문으로만 들었다.

며칠 전 한국 중앙지 논설위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이따금 안부를 묻고 좋은 글에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를 나누는 사이이다. 그가 쓴 글이 잔잔했다. 한 구절만 그대로 옮긴다.

‘청나라 문인 김성탄은 행복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 같다. 그가 읊은 '내가 행복한 때 서른세 가지'에 이런 것들이 있다. 겨울밤 술을 마시다 창 밖을 내다보니 함박눈이 펄펄 내릴 때, ...’ (김태익, 조선일보, 병신丙申申의 행복, 1-1-2016)

한마디 덧붙였으면 한다. 향기 좋은 포도주나

뜨거운 차를 놓고 늦은 겨울밤 책을 읽다가 얼핏 창밖을 본다. 아니면 뜨거운 백화수복 왕대포도 껌을 씹지 모른다. 함박눈이 펄펄 내린다면 그보다 멋진 정취와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보스톤 겨울밤이라면 씩 어울릴만 하다. 텔레비전 커피 광고는 아닐지라도 그림은 그럴 듯 하다. 안성기나 한석규가 어울릴 배우일까?

이번 겨울엔 미웠던 토지를 읽어 볼까? 현대 종이책이 없다. 이북이 편하기는 한데 이곳 저곳에 낙서하고, 밑줄 쳐가면서 볼수 없다는 건 문제다. 그건 아쉽다. 그렇다고 뜨거운 라면 냄비를 종이책 위에 올리지는 않는다. 아내가 질색할게다. 추운 겨울밤에 집 밖으로 내쫓겨나고 싶지 않다. 날짜 지난 보스톤코리아 종이신문은 짬뽕을 먹을 적에 밑받침으로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편집자는 섬섬해 할게 틀림없다.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16)

별써 정월 중순이다. 소한小寒을 거쳤으니 대한大寒을 기다린다. 곧 입춘이 다칠게다. 올겨울은 그나마 지독하지 않다. 그건 다행이다. 모두 평안하십시.

기억하시는가. 그 옛적 가을이면 독서주간이란 게 있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등화가친燈火可親이라 했던가. 요샌 가을 뿐 아닐게다. 보스톤 겨울도 책 읽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양주동 선생의 글을 떠올린다. 면학勉學의 서書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논어의 구절을 인용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공자의 당초當初 初박素 朴한 표현이 그대로 고마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씀이다. 책을 읽으라는 말씀인데, 책을 읽지 않는다는 질책 인게다. 다시 무애선생의 변辭이다. '독서란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지설持說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가 책을 읽고 독후감을 SNS에 올렸단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에 부담없이 읽어내려갔을 게다. 오십여 권의 책을 일 년여에 걸쳐 읽었는데, 종이책이라는 데에 고개를 가우뚱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는 전자책 프로그램이 없던가. 아하, 그도 환갑이 넘었겠구나. 여전히 그 사람도 종이책 세대 아니던가 말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했는데, 종이책 가지고 놀던 그도 예외는 아닐 게다. 누가 말한 것 한마디. 책 많이 읽은 걸 자랑하는 건, 밥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책 많이 읽는 사람은 구태여 티내지 않아도 된다. 서향書香내가 입에서 얼

# 기자 모집

보스톤코리아에서 기자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셀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2016년 1월 15일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mailto: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 전 뉴햄프셔 한인회장 이임사

2015년12월

존경하는 동포여러분!  
먼저 본 회를 대표하여 동포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질과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동포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던 회장직을 수락하여 지난 4년간(9대, 10대)의 임기를 과오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재임 동안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 주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비롯하여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 한인회와 동포단체들 그리고 사업체, 또한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회 관계자 및 본 회의 임원/이사 등, 특히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봉사자들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보내주신 성원은 많은 용기가 되었고 긍정적인 협조는 성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할 것이며, 잘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승될 수 있도록 차기회장을 도와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여하여 화합으로 발전하는 한인회’ 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4년간 모든 임원/이사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본 회의는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 및 친선을 도모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포괄적인 목표 달성에 일조하였습니다. 주 목적이 자선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권익을 성취하고자 함이기에 가시적인 성취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가지 본회의 발전사에 적지 않은 족적을 남길 지속사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 본회는 지난 2006년부터 연방국세청(IRS)에 의하여 인가된 비영리 면세단체(501C(3))로서 그 의무와 권한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모든 기부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 개방되고 투명한 재정사항과 회계는 법적으로 공인된 비영리단체의 의무임은 물론 이러한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 본 회의는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단체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우리 모두의 단체입니다. 주어진 우리의 권익을 정당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한인회가 필요하며, 그 권익을 찾고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며, 또한 헌신적인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동포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지난 2006년 말 조직된 위원회는 본 회 활동의 중심점이 되며 동포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게 될 한인회관의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은 많은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액수는 7만불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한 액수이지만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위하여 정성과 지혜를 모은다면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는 그 날이 결코 멀지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다 같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모든 동포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나섰던 이들을 기리는...” 깊은 뜻 깊은 행사입니다. 본 회가 창립된 1998년 이래로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 주립 현충원에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 가 제막될 당시에는 제작비용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해 부터는 보다 더 큰 규모로 현충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발발과 정전 60주년을 2010 ~ 2013년에는 보스톤 총영사관의 특별지원으로 모든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였으며, 이어진 2014년의 행사는 주방위군 사령부와 합동으로 사령부의 연병장에서 1천여명의 참전용사들과 내외빈들을 초청하여 대규모의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엄성준 총영사를 비롯하여 주지사, 그리고 연방상하원들도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무공에 보은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하는 참전용사들의 숫자가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보은행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동포들

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이민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3년부터 주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2003년부터 매년 본 회 신년 행사일에 접하여 선포)는 우리들의 정체성 고양은 물론 한인족을 주류사회에서 다시 한 번 높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가 30년 동안 매년 봄에 선포해 온 ‘태권도의 날’ 은 우리의 고유무술이 미국인들의 심신단련과 정신수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제 이 태권도는 단순한 호신술의 경지를 넘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각인하였습니다. 그의 조국의 국경일 기념행사와 민족의 전통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확인은 물론 주류사회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을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동포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2015년에 새로이 단장한 본 회의 Website (<http://newhampshire.korean.net>)는 명실공히 동포사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결망을 구축하여 차세대의 직접적인 참여는 물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본 회의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도 마련되어 좋은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동포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된 순간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기관과 단체의 기대와 요청에 다 부응하지 못할 때는 송구스러웠지만 동포 개개인의 도움 요청에는 언제 어디라도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그간 쌓아온 인맥을 통해서라도 동포들의 불이익과 부당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본 회의 재능을 소유한 동포들의 봉사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동포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년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다수의 입후보자들이 ‘대권’ 의 꿈을 안고 뉴햄프셔 주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득표활동을

한지가 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되는 뉴햄프셔 주의 예비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하여 모두가 듣기 좋은 ‘공약’ 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며 시민의 특권인 선거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보다 못한이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후보의 대열에 끼진 않았지만 선택의 권한은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현자와 가장 바보는 변화하지 않는다” 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도 품격있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항상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국에서도 내년엔 총선이 실시됩니다. ‘선량한 사람들’ 이 선량으로 선출되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질서의 토대위에서 힘차게 번영하는 조국을 기대해 봅니다. 조국이 한미관계를 원활히 하면서 강국으로 도약할 때 우리 동포들의 위상이 격상됨은 자명한 일이며, 동시에 2백만 재미동포들이 정체성 확립과 권익신장을 통하여 ‘아메리칸 드림’ 을 성취한다면 조국이 선진국들과 함께 세계를 리드하는데 일조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동포들의 국적에 따라 모든 동포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동포여러분,  
임직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한인회를 발전시켰으며 동포사회를 성숙시켰습니다. 유능한 차기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본 회의는 진일보 할 것이며 더욱 발전의 변화를 도모하리라 기대합니다. 차기회장을 도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한인회가 되는 길을 찾아 소신을 다 할 것입니다. 더욱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화합으로 발전하는 동포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회장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4 화랑세기花郎世紀, 1세 풍월주風月主 위화랑魏花郎(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에 법흥대왕에게 권하여 위화랑에게 하배(下拜) 하게 했다. 위화랑이 그것을 아버지 염신공에게 말했다. 염신공이 말하기를 “국공이 너에게 하배를 하는 것은 너를 신臣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왕(소지왕)이 늙었는데, 국공이 대망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그를 섬겨야 한다.” 했다. 위화랑은 이에 법흥을 찾아가 신하가 되어 섬기니, 많은 것이 국공의 뜻에 맞았다. 법흥이 말하기를 “나의 등통鄧通이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처왕毗處王(소지왕)이 죽었다. 지증대왕이 즉위하고 법흥을 태자로 삼았다.]

위화랑의 풍모와 화랑의 수장으로서의 용감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누이 벽화부인이 후궁(원문에는 비처후毗處后로 되어 있다)이 된 후 왕궁에 수시로 출입하여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위화랑이 아버지 염신공의 배경보다는 누이 벽화의 힘이 더 컸다고 보여진다. 위의 화랑세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서기 500년 전후이다. 삼국사기에 보면 소지왕이 벽화를 왕궁으로 데려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년 11월에 죽었다. 그리고 부군副君은 문자적으로 ‘부임금’ 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소지왕의 6촌으로 왕위계승 서열에서 떨어져 있었던 지증이 부군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인 위치와 왕실내부 권력의 추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소지왕의 총신인 염신공이 국공(김원종, 후에 법흥왕)이 대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을 보고 그의 신하가 되어 섬기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벌써 왕실내부 권력의 움직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염신공의 정치적 수완이나 권력의 부침浮沈에 따라 줄서기를 잘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왕에게만 신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나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 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즉 여타 집단의 우두머리에게도 쓰여지는 용어였으며, 임금을 제외하고는 보통 사신私臣으로 쓰였다. 그리고 신하가 되기로 한 위화랑에게 법흥이 말하기를 “나의 등통이다” 라고 했는데, 등통은 중국 한나라 문제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이다.

[위화랑은 벽화후에게 권하여 태자를 섬기도록 하여 딸을 낳으니, 바로 삼엽공주이다.

그 때 태자비인 보도부인은 곧 비처왕의 딸인데 총애를 받지 못했다. 보도의 아우 오도는 묘심이 선혜후와 사통私通하여 낳았다. 그는 매우 아름다워서 태자의 총애를 받았다.]

서기 500년 11월에 소지왕(비처왕)이 죽고(죽임을 당하고?) 지증왕이 즉위하였다. 그리고 아들 김원종(후에 법흥왕)이 태자가 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원래 김원종의 부인은 소지왕과 왕후(선혜후) 사이에서 태어난 보도부인(保道夫人)이었는데 왕위교체 사건으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진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말년에 정사를 소홀히 하고 날이군에서 데려온 벽화에게 빠져서 지냈던 소지왕을 지증왕(법흥왕의 아버지)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일어난 사건이 원인이 된 것 같다. 이와 동시에 권력의 추에 따라 움직이던 위화랑은 누이에게 태자(법흥왕)를 섬기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삼엽공주이다. 그리고 오도(吾道)는 보도의 동복 아우이다. 즉 어머니 선혜후가 묘심랑과 사사로이 정을 통하여 딸 오도를 낳았다. 물론 소지왕이 살아 있었을 때의 일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T. 617-955-9112



##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명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다국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원 종합검진

~~80만원~~ ~~65만원~~  
남: 95만원 / 여: 7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미백검진 (상체거울 비인도, 사체 촬영)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영부세라 검사 (간염, 대장암, 황달, 난소암, 전립선암) 5. 상체거울 검사 (흉부 X-Ray, 타코, 노폐물 제거법) 6. 요 검사 10종 7. 제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경, 흉포, 암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흉부 (C)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장내시경수술

### VIP 입원 종합검진

~~290만원~~ ~~240만원~~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기본 검사 (상체거울 비인도, 사체 촬영)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영부세라 검사 (간염, 대장암, 황달, 난소암, 전립선암) 5. 상체거울 검사 (흉부 X-Ray, 타코, 노폐물 제거법) 6. 요 검사 10종 7. 제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경, 흉포, 암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뇌 MRI 2. 뇌 MRI 3. 관상동맥 CT 4. 흉부 (C) CT 5. 전장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경부관 초음파 8. 전방선 초음파 9. 부인내시경 초음파 10. 골밀도 검사 11. 대장내시경수술

### 당일 종합검진

~~55만원~~ ~~65만원~~  
남: 50만원 / 여: 60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흉부 (C)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1. 갑상선 초음파 2. 부인내시경 초음파 3. 유방 초음파 4. 골밀도 검사

###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 PET CT + 특부초음파 (T + 비인도) & 호르몬 + 호르몬대신항암제, 동맥경화진단지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포함: 대입서비스 제공  
 \* 검사시간 및 예약  
 - 당일 종합검진: 09:30am~12:30pm (예약)  
 - 당일 종합검진: 2pm~연속2시간 1pm(1회 2회) 1건당 40000원, 예약 / 공평의료  
 - VIP 종합검진: 2pm~연속2시간 1pm(1회 2회) 1건당 40000원, 예약 / 공평의료  
 - VVIP 종합검진: 2pm~연속2시간 1pm(1회 2회) 1건당 40000원, 예약 / 공평의료



## 2008년부터 해외동포 건강검진 시행 대림성모병원

- 5개의 특성화된 전문 센터 구비
- 15개 진료과에 40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80여명의 의료진
- 대다수 의료진 대상: 라스선 부분 5년 연속 대상 수상
- 약 2500여명의 해외동포 및 외국인 검진 및 수술 경험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건강검진 안내**  
 ① Royal Gold 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② 세면도구 제공 / ③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 제공  
 ④ Royal Gold 검진은 PICK UP SERVICE 제공 / ⑤ 검진시행부터 결과상담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b>Royal Gold 검진</b>	남성 : 215만원   여성 : 225만원
<b>입원 종합 검진</b>	남성 : 84만원   여성 : 75만원
<b>당일 종합 검진</b>	남성 : 50만원   여성 : 60만원 (대장내시경 추가: 남성 60만원   여성 70만원)
<b>복화 검진</b>	▶ 뇌 정맥검진 : 92만원 (소요시간 1시간)    ▶ 심장 정맥검진 : 17만원 (소요시간 2시간) ▶ 심장정맥 MD CT : 22만원 (소요시간 30분)    ▶ 골다공증 검사 : 5만원 (소요시간 30분)

**전문센터 및 주요수술** 유방입갑상선 센터 / 소화기내시경 센터 / 각주관절 센터 / 중풍치매 센터  
 하지장액류 / 다한증 클리닉 / 부인과 클리닉 / 복강경 클리닉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내 떡보다 더 커보이는 남의 떡, 가져도 되는걸까?' (1)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I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내 것이 아닌 남의것을 탐하여 받는 휴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 이유는 시기심과 질투가 가진 파괴력 때문이다. 미스타 김은 몇년 전, 한국 방문 길에 대학교 동창회 연말파티에 참석했다가, 대학교 다닐 때 시골 티 팍팍 하며 우유부단 하게 보였 던 한 클래스메이트가 몇 백명의 사원을 이끄는 사장이 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또한, 별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동창들이 크게 성공한 사실도 알게되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격언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미스타 김은 과수석졸업을 하면서 대학원을 풀 장학금을 받는 혜택을 받았다. 남들 다 하는 근 3년의 군 복무를 석사 장교로 군 복무 6개월로 맞추었고,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받는 혜택을 받으며 유학을 떠났다. 미스타 김의 전도양양한 미래의 삶을 모두가 부러워했다. 공부 끝난 후, 자기 색깔로 살기보다 한국사회의 일등주위에 염증을 느꼈던 미스타 김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정착했다. 직장의 프로젝트 리더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 동창회를 다녀온 이후로 그의 클래스메이트들의 성공은 자신을 자극했다. 그들의 성공을 기뻐 해주기보다는 왠지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았나 하는 후회감과 함께 그들의 성공이 몹시 부러워졌다. 미스타 김의 이 감정은 시기심일까? 질투심일까? 다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시기심(Envy)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정서의 하나이다. 영국의 대상관계 분석가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은 인간의 선망(Envy)과 질투(Jealousy)의 뿌리는 출생 직후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클라인의 학설은 이렇게 말한다. '아기는 엄마의 젖가슴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배고픔이 충족이 안 될 때 느껴지는 자신의 증오를 '나쁜 젖가슴' 으로 투사하고, 자신이 이토록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나쁜 젖가슴을 미

워하며 파괴하고 싶은 환상을 갖는다. 반면, 이 파괴하고 싶은 감정때문에 나쁜 젖가슴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박해 두려움(Persecutory Anxiety)를 갖게된다.' 이 과정은 아기 누구나 겪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지만, 배고픔의 충족이 잘 안되어, '좋고 나쁜 젖가슴' 의 대상 안착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면, 일생을 통해 불안증, 대인 관계, 애착관계 더 나아가 정신 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원초적인 시기심의 대상이 모호한 젖가슴이라는 멜라니 클라인의 학설로 볼때, 아기의 원초적인 시기심은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 각별한 대상(엄마)을 다른 대상(젖가슴)으로 전이시킨 것이다. 따라서 시기심의 대상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이 그 대상이 무관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더 면밀히 깊게 들어가 보면, 자신이 태어나 최초로 상대한 그 대상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 아주 원초적인 감정기기에 파괴력의 힘은 상당히 크다. 이 감정이 커지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고통을 주고 과멸시키고 싶은 충동의 집착이 생긴다.

백설공주의 왕비 계모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녀는 최고로 예쁜 자신의 타이틀이 백설공주에게 빼앗기기 시작하자, 백설공주에게 살의를 느낄만큼 미워하기 시작했다. 백설공주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그녀의 시기심때문에 백설공주를 몇번씩 죽이려 하지 않았는가? 만약 이 이야기가 동화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였다면, 왕비 계모의 시기심이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으로 전이 되어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계모의 최초의 잘못된 대상관계의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 속에서 시기의 대상이 되면, 백설공주의 해피엔딩과는 다르게 시기의 대상에서 빠져나가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시기를 하는 사람은 시기심의 대상을 사물화 하기에 공격의 피해를 주어도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없다. 마치, 아기가 젖을 주지 않는 '나쁜 젖가슴' 을 대상화하여 사물화하는 전이의 과정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기하는 마음의 고통이 자신 때문이 아닌 자신이 시기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주었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시기하는 대상을 고통스럽게 하여 벌을 주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집착으로 전이 시킨다.

만약, 불편한 관계에서 빠져나오려 관계회복을 해보려 시도한다면 하지 말것을 권유한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며, 시기 당하는 사람을 자신이 최초로 상대했던 가해자로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면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반응을 최대한 줄이고, 침묵을 하여 시기를 하는 사람이 다른 대상으로 전이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장희빈의 시기심을 보면 안다. 장희빈의 시기의 대상이었던 인현왕후는 그녀의 억울한 모함에 맞서다, 결국 폐서인이 되었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다.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면 몸을 낮추고, 되도록 만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능력있는 필은 자신의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핍박하며, 자신이 하지 않은 실수를 교묘히 상사에게 알려면서 자신을 감면시키려 하는 억울함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테라피를 요청해왔다. 똑똑한 필에게 시기심을 느꼈던 그의 상사의 집착적인 행동에 너무나 억울해서 맞서고 싶었다. 하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 대항할 수가 없었다. 테라피 과정 중, 대항하는 대신 필이 HR(Human Resources)에 이야기를 하고 부서를 바꾸어 주기를 요청하도록 권유했다. 다행히 HR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상사를 만났다. 그리고 이년 뒤, 그는 지난 상사와 같은 직급으로 승진되었다. 필의 지난 상사는 메니져 급으로 진급한 필과의 동료미팅을 해야하는 곤란함을 겪어야 했고, 그 이후 몇년

뒤 필의 부하 사원이 되는 지옥을 겪어야 했다. 결국, 필의 전 상사는 그 회사를 떠났다. 필은 부당한 전 상사의 시기심에 맞서고 싶었지만 꼭 참고 시기심을 피한, 현명함의 명쾌한 승리였다.

그러면 질투는 시기심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 질투(Jealousy)는 시기심(Envy)과 찬사(Admiration) 심의 중간지점이라 할 수 있다. 시기심은 시기심의 대상자가 잘 되는 꼴을 볼수가 없어 없애 버리고 싶은 엄청난 파괴력과 함께 행동으로 전이된다. 이와 다르게 질투는 부러운 마음,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비교하는 마음일 뿐,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는다. 하지만, 질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질투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시기심으로 전이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질투를 시기심으로 전이시키지 않도록 질투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로버트 배런 (Robert Barron) 신부는 단체의 신곡에서 소개된 인간의 일곱가지 대죄: '폭식 (Gluttony)' '질투(Envy)' '색욕 (Lust)' '자만(Pride)' '나태 (Sloth)' '탐욕 (Greed)' '분노(Wrath),' 를 치료하는 방법을 자신의 책 'Seven Deadly Sins - Seven Lively Virtues' 를 통해 알려준다. 배런 신부는 질투 치료는 찬사 (Admiration) 라고 말한다. 찬사 안에는 존경심과 감탄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칼럼의 마무리 전, 칼럼시작의 질문을 다시 해 본다. 미스타 김의 마음은 시기심이었을까? 질투였을까? 미스타 김은 시기심과 찬사의 마음 중간인 질투의 감정의 선에 있었다.

지면 상, 다음 칼럼을 통해, 한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의 질투심을 다스렸는지, 더불어 질투의 요인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질투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시기심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CHESTNUT HILL BRANCH  
NOW HIRING



CALL  
1.877.486.4756  
VISIT  
uniqlo.com

Uniqlo The Mall at Chestnut Hill : 199 Boylston St. Newton MA 02467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월 \$ 24.99

프리미엄 무제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5) 새해결심: 투자 시작

미국에서 부자 1%에 속하기 위해서는 조정된 수입 (adjusted gross income)이 \$435,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자가 미국에 약 13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2016년 새해 재정계획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 전 인구의 반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2009년 이후 약 200%가 상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짬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새해 아침 부자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 비상금 마련

생활비로 3~6개월 살아나갈 비상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고장이나 지붕에서 비가 새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목돈이 나가며 꾸준한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상금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 \* 직장 은퇴플랜 최대 이용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손쉽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봉급에서 자동으로 얼마가 투자됩니다. 회사 대부분이 투자자가 투자한 액수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간을 더 보태어 줍니다. 한 예로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 (Ford Motor Co.)한다고 합니다. 한 직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공돈 (free money)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알지 못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8,000까지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봉 \$10만에서 \$18,000을 투자하면 \$82,000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합니다. 또한,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6,000을 더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대금액이 \$24,0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926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10.2%입니다. 미국 채권투자도 연 수익률이 5.7%입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매년 봉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투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년 1%씩 은퇴투자를 늘려나갑니다. 1% 증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그마한 액수가 나중에 은퇴자금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도 Simple IRA나 SEP IRA를 통해서 은퇴플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은퇴준비를 35살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년 \$10,000씩 8% 이자로 30년 투자하고 65살에 은퇴하면 은퇴자금이 \$122만으로 백만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도 Simple IRA나 SEP IRA를 통해서 은퇴플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은퇴준비를 35살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년 \$10,000씩 8% 이자로 30년 투자하고 65살에 은퇴하면 은퇴자금이 \$122만으로 백만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 \* 학자금

한국분들은 아이들 학자금 마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자금보다 은퇴자금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학자금은 일하면서 혹은 빌려서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은퇴생활은 돈을 빌려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투자목적

투자를 시작할 때 정확한 투자목적과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10년 이상이 된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투자목적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하락에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은 2009년 이래 가장 나빴던 시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16년 역시 주식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투자하면 부자 되는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주택 구매 전 놓쳐서는 안 될 계산 요소들

내 집 구매를 갈등하는 상황에서 흔히 듣게 되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조언들이 있다. 집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금리가 오르기 전에 구매하라거나 렌트비는 버리는 돈이라는 판단들이다. 내 집 소유를 중시하는 동양인과는 다르게 많은 미국인들은 단지 집이 부의 저장 창고는 아니라는 경험담들을 전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오히려 지갑을 출게 만드는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생각지도 않은 비용 증가로 재정적인 궁핍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주로 재정 상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택 구입에 기인한다. 재정 안정권을 넘어서 주택 구입을 했을 경우 외부의 작은 경제적인 충격에도 곧바로 모기지론 상환 연체가 잇따른다.

구매 후 집값이 급상승했다고 해서 상승한 집값에 의존해 추가 대출을 받아 또

하나의 집을 사 두 개의 모기지 상황을 감당하는 일 또한 위험하다. 주택 구매를 투자로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거주 기간을 생각해야 한다. 집을 처음 구입하는 안정된 수입을 가진 젊은 전문직들은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많다. 집을 되파는 시점에 반드시 내 집값이 올라 있다는 보장은 없다. 주택 구매는 투자의 한 형태에 해당될 뿐 투자의 우선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주하고자 하는 도시의 분위기 파악도 중요하다. 재정적인 분위기가까지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재정 상담가를 먼저 찾아야 한다.

구매자의 나이도 주택 구매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20대나 30대라면 구입하지 말라는 조언은 그만큼 희생을 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럴테면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결림돌이 되기 쉽다. 연령에 따라 자가 소유는 30대까지는 40퍼센트, 35세 이상인 경우는 60퍼센트, 60대 이상은 80퍼센트 정도다.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University of Indianapolis)의 로렌스(Laurence DeGaris)교수는 자신의 주택 구매 경험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계산해 볼 것을 권한다. 흔히 첫달분 렌트비와 첫달분 모기지 상환비만을 비교해 주택을 구매하는 게 이익이라는 계산을 하지만, 집을 구입하자마자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곳곳에 생긴다. 원금과 이자, 주택보험, 커뮤니티 비용, 집 수리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을 할 경우라면 재고해봐야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면허 기술자를 고용했다가 추후에 복원 비용이 배로 들

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북한 4차 핵 실험 규탄 성명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줄곧 핵확산 금지조약(NPT)체제를 뒤흔든 북한의 연이은 4차 핵실험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임을 인식하며 이번 핵실험 강행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6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2016년 1월6일 10시30분 아침에 전세계를 놀라게 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발표를 한 후 광적인 축제분위기에 도취되어 있다.

이는 세계평화질서를 극도로 위협하는 사태이며 그 동안 남북한의 비핵 합의와 6자회담 등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도발행위로서 국제사회의 그 어떤 비난과 강력한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에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2016년 1월10일 오후 5시에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무분별한 핵실험 사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에 아래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유엔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를 뒤흔든 이번 핵실험 강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핵실험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핵 보유 포기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국제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중국정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바 대로 한반도 금수강산을 방사성 물질의 오염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미사일 프로그램, 핵실험 등을 즉각 포기하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에 이어 또다시 4차 핵실험을 자행한 집단임을 직시하여 대국민 안보 체제를 더욱 강력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로 인한 한반도 및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에 대하여 엄중하고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5.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무모한 세력 과시 및 무력도발은 김정은 체제의 자멸을 재촉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 이후 추가 핵실험 등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10일



## 규탄 성명 참여 단체 (무순)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Korea War Veterans/보스턴 한인회/로드아일랜드 한인회/뉴햄프셔 한인회/보스톤 이북 5도민회/보스턴 재향군인회/보스톤 한미노인회/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한국전 참전 국가 유공자회/해병 전우회/보스턴 나라 사랑회/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국제선 보스턴지회



# 이민 소식 (2016년 1월 둘째주)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 올해 H-1B

지난달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경우에 H-1b 와 L-1비자 신청료가 급격히 인상됩니다. 즉, 피고용인이 50명 이상이거나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인 회사나 단체가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신청료와 별도로 추가 신청료를 내야합니다. 기존의 추가 신청료는 H-1B 일 경우 \$2,000이며 L-1 인 경우엔 \$2,250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이들 추가 신청료는 각각 \$4,000 (H-1B) 와 \$4,500 (L-1) 입니다.

이번 인상에는 득과실이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인상으로 큰 단체나 회사들의 집단적인 신청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신청서당 \$4,000 이란 추가 신청료는 아무리 큰 회사나 단체라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에 대해 올해 H 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회사나 단체를 가장해 집단적으로 H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사기행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상이 맞다면 지난 2년과 다르게 올해는 H 비자 쿼타가 적

어도 신청 1주만에 소진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 H 신청에는 중/소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이번 인상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인상은 회사 뿐만 아니라 학교나 연구소 같은 단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대부분 학교나 연구소들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신청료 \$4000 은 오히려 회사보다는 학교나 연구소 같은 단체에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Post Doc 등 학교나 연구소에서 신청해주는 H 신청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들 연구원들의 취업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인상은 initial 신청서 뿐만 아니라 1st 연장 신청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나 연구소 뿐만 아니라 기존의 큰 회사에서 이미 H 를 받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단체가 비용을 이유로 연장을 허가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Other Updates

- 이민국은 최근 2년 임시영주권을 연장하

는 신청서 (Form I-751) 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버전은 11/13/15이며 오는 2월29일 부터는 11/13/15 버전만 accept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신청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 신청서 (Form G-28) 와 노동허가 신청서 (Form I-765) 를 개정했습니다. Form G-28 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버전과 쓰셔야 하지만 Form I-765 는 개정 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최근 이민국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이민 관련 신청서를 처리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케이스들을 다른 서비스 센터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근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과중한 업무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업무에 여유가 있는 캘리포니아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케이스들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신분변경/연장 신청서들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전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이전은 케이스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민국의 원활한 케이스 심사를 위한 것이니 혹시 이러한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족초청과 일부 취업영주권은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인터뷰 통과 시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인터뷰가 통과 되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발급했던 노동허가서를 바로 회수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은 영주권 인터뷰를 승인해도 승인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영주권 카드는 대부분 인터뷰 후 약 2-3주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배달됩니다. 따라서, 2-3중 동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이민국은 인터뷰 통과 후 (신청자가 요청하면)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주거나 인터뷰 승인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이러한 서류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k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한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법] 보통 명사화된 상표와 상표권 등록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이민 1세대 분들이 정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원어민 같은 영어를 구사해 보겠다는 것일 겁니다. 간혹 저희 로펌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 원어민 변호사들이 "Let me google it"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한다는 표현인데요, 워낙 영어권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색엔진이다 보니 이렇게 관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일반 명칭(Generic Marks)'으로 사용되는 상품과 상표권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판례와 사례를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표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삼성의 갤럭시, 애플의 맥북, 도요타의 렉서스 등 글로벌 기업의 대표 제품군 또는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필품의 명칭이나 특정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과 표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어느 기업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는지를 식별하게 해주는 상표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붉은색 바탕에 흰색 필기체로 쓰인 'Coca-Cola'라는 로

고를 통해 특정 캐러멜색의 탄산음료가 경쟁사인 펍시코의 펍시콜라가 아닌 코카콜라 컴퍼니의 제품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반 명칭(Generic)이나 관용적으로 특정 상품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애플 컴퓨터'와 '델 컴퓨터'가 있다면 '애플'과 '델'이라는 단어는 각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상표로 볼 수 있지만,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는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쇼핑센터나 백화점에서 자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상표일까, 아니면 상표가 아닐까? 한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기업의 상표였던 적이 있지만, 현재는 상표가 아닙니다. 1900년경부터 수십 년 동안 Otis Elevator Company의 상표로 사용돼 왔던 '에스컬레이터'는 1950년 Houghton Elevator Co. v. Seeberger 판례에 의해 "더 이상 상표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이는 계단 및 인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

용되므로 더 이상 소비자에게 상품의 근원지, 즉 제조사 또는 판매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특허상표청에 해당 기업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쓰였다 하더라도 그 상표가 일반 명칭이나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되는 상황이 되면 상표권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진통제/해열제로 통용되는 '아스피린(Aspirin)', 냉각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Dry Ice)', 그리고 강력한 접착제로 사용되는 '슈퍼 글루(Super Glue)' 등도 한때는 특정 기업들의 상표였지만 현재는 미국 내에서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 단어 중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상표로 인정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상표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피부가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인 화장품/크림/약품의 원료 등의 상표인 '바셀린(VASELINE)'에 대해 1996년 한국에서는 콜드크림, 클린징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명칭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상표, 또는 관용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

기업에서 상표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고 또 그 가치를 이루고 증가시키기 위해 마케팅, 품질유지, 지적재산권에 투자되는 시간과 인

적/물적 비용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한 상표가 '아스피린'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상표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어 상표권을 박탈당할 때의 손실은 막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많은 기업이 위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지류의 상표인 크리넥스(Kleenex), 복사기 등에 관련된 상표인 제록스(Xerox), 그리고 인터넷 검색엔진 등에 관련된 상표인 구글(Google) 등의 소유 기업들이 위와 같이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종종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mailto: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http://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https://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http://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http://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드롭 보스톤서쪽(RT.2)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29,000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 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8(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 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C, Chemistry, Biology, Physics
-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수업

###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입처리

###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 ~ 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